

통계 조사의 현장에서

(’87년 통계요원종합교육시 현장경험발표사례)

1987.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32967

머 리 말

이 책은 '87 통계요원 종합교육 때 발표된 현장조사 경험에 관한 28편의 우수 사례를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통계조사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 책에 수록된 발표문에서 보듯이 일부 응답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확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순수하고도 진지하게 조사에 임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생산해내야 하는 우리 통계요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수록된 내용은 어려운 통계조사 환경속에서도 통계인으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저버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우리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자는 단순히 통계조사요원의 고충을 기록한다거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보다 바람직스럽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의 발간을 계기로 보다 나은 통계조사 환경이 조성되고 통계조사에 임하는 여러분에게도 흔들림없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통계요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7 . 4

조 사 관 리 과 장

목 차

저녁노을	서울서부	이 만 지	3
장하오, 잘가시오	인 천	송 광 호	7
어느날	전 북	유 맹 렬	12
마라톤 주자를 생각하면서	경 북	문 중 영	17
통계조사의 보람	서울동부	송 영 남	21
자기개발과 원만한 대인관계	서울남부	김 석 관	25
동두천 700일	서울북부	박 위 성	27
일석이조	부 산	원 성 삼	30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경 남	박 종 규	33
화합과 융화의 길은 거리감을 좁힌다.	경 기	장 하 영	37
보 램	강 원	강 상 익	41
통계인의 긍지를 찾아서	충 북	김 중 욱	47
실사업무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	충 남	송 영 준	50
통계조사 현장에서의 나의 고백	전 남	최 동 호	53
나의 사전에 맞사지는 없다	서울북부	김 용 분	58
사명감과 인내심	강 원	성 미 영	62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면서	충 남	계 희 정	67
유리컵	서울동부	황 명 화	72
돌아오는 길	서울서부	홍 종 희	76
눈물과 웃음의 조화	서울남부	박 찬 희	79

별을 바라보며	부 산	김 양 주	84
후회없는 하루	경 남	김 계 희	87
경북과 경기와의 조사 비교	경 기	이 정 미	92
사람과 인간사이	인 천	이 영 주	94
사랑을 나누며	충 북	원 용 숙	96
인내속의 지혜	전 북	최 순 옥	99
우리는 누구인가?	전 남	국 영 숙	101
통계 아가씨	경 북	조 미 옥	105

저녁 노을

서울서부출장소 이 만 지

이렇게 우리 통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의 꽃을 피워 본 것도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것이 그지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제 사생활에서는 커다란 보람이 있었고 생활도 많이 윤택해 졌습니다. 두 형제를 두었는데 큰애는 그때 고등학교에서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작은 애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의 따뜻한 보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직장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 직장애 그동안 무엇으로 보답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임무에 충실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공헌해야 할텐데 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 주어진 임무에만 허덕였을 뿐이니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내 직장의 밝은 앞날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찾아 충실히 일해볼 결심입니다. 어느사회든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충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갈때 마음은 늘 행복에 가득 찰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누가봐도 믿음직 스러워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우리 통계조사의 어려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현장에서 숭한 난관을 극복해야 생산되는 통계! /

허나 이것이 천직이라면 만난(萬難)을 극복하며 충실할때 여기에 희열의 소용돌이도 움터 올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옛 이야기이지만 8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이 태평로1·2가동, 정동, 서소문동이었고 이곳을 85년초까지 자그마치 3년을 견딘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2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삼성물산 본관이 우뚝 자리잡은 곳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기라성같이 나열돼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광공업동태 조사를 해야 할 일간지 신문사가 꼭 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의 생산이 전부 이곳에서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조선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과 4개의 신문사를 두루 조사하고 나면 얼마나 신경을 썼든지 뒷통수까지 멩하게 울릴지경 입니다. 더구나 대상사업체 21개중 15일 이전에 자료가 완료되는 업체는 불과 3개업체. 나머지 18개 업체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듯 15일이 돼야 겨우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별의 별 사업체가 다 있지요. 신문사 담당 직원들은 대개가 아예 쳐다 보지도 않고 몇몇 대기업 직원들은 귀찮다는 기색이 얼굴에 완연히 나타나곤 했습니다.

“다음달 부터 우리는 뺏시다”

“또왔군. 지금 바쁘니까 내일오시오”

“이거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그거 안할 수 없어요?”

이런 도전적인 언사에 불끈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인가 TV에서 집배원들의 노고를 극구 칭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을 쥐도 시원치 않을 만큼 걸기도 많이 걸지만 찾아 헤매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지금까지 칭찬은 커녕 제대로 “수고

합니다” 하는 말조차 들어보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 천직이려니 마음다져 먹고 한 사업체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한 두끼 얹해 본 사업체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담당직원의 결혼식장에도 3번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인가는 모 회사에서 일일 찻집을 운영 하는데 모인 자금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모부대 위문금에 쓰일 것이라고 해서 천원짜리 커피를 3장이나 사 준일도 있고 모신문사에서는 창간호가 발행되는데 1년치라도 신청하라고 해서 줄지에 정치잡지도 1년이나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여를 지나고 나니 그때서야 본 궤도에 오른 느낌을 느꼈고 “우리는 뺨시다” 하는 말대신 “힘들지요?” 하며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들여 놓은 지역이 너무도 아까워 3년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되도록 꼭 한군데가 설득이 안됐습니다. 모신문사 직원인데 얼굴은 가름하니 신경질 꽤나 붙어있고 점심 한끼 하자고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가 3년을 끌어 왔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막무가내로 18일 퇴근시가 돼야 조사표를 던지다시피 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 지난 84년 9월분 조사로 기억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한번씩 들렀습니다. 여전히 “내일” 또 “내일” 하다가 18일 오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시내 출장이라고 자리에 없었지요. 들어 올때를 아무리 기다려도 와야지요? 마감 시간은 자꾸 닳쳐 오는데 정말 초조하데요. 4시가 다 돼서야 무슨 서류하나 들고 들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별것도 아니면서 늦게 온 것입니다. 조사표는 작성 됐느냐 했더니 바쁘니까 내일 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 마음 다져먹고 사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사장실 문은 녹크 할 용기가 없나더군요. 할 수 없이

부장을 찾아 인사를 정중히 하고 신분증을 보이고 찾아 온 용건을 조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일 월례 경제동향 보고자료를 신문에 공표하면서 막상 귀 회사가 제공할 자료는 이렇게 늦으니 좋은 통계가 생산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책임자답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담당 직원을 즉시 호출했습니다. 조사표도 복잡하지 않아 시간도 얼마 안걸릴텐데 왜 자꾸 헛걸음을 시키느냐고 즉시 작성해 드리라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담당 직원을 따라 나왔습니다. 허나 이사람 하는 말이 “뭐 하러부장님한테까지 찾아 갑니까?” 한심한 친구로군 하고 생각하면서 우선 급한데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조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남짓 걸려 작성한 뒤 전화로 사무실에 수치를 알려주고 마감지어줄 것을 당부한 뒤 그 담당 직원에게 미안하니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오면서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차를 나누며 우리들의 애로사항과 이렇게 해야 좋은 통계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고생도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끈질기신 분이군요. 알았으니 다음달 부터는 어김없이 15일까지는 작성해 놓겠으니 염려마시고 오십시오” 6시를 알리는 신호를 뒤로 하고 구내식당 문을 나서면서 저는 이렇게 대꾸하듯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끈질기지 않으면 안되는 걸...!” 신문사 빌딩 문을 나서던 순간 서쪽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너무도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기쁨으로 충만한 내가슴에 그 저녁 노을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하오, 잘 가시오.

인천출장소 송 광 호

호랑이 해 이어서였던지 지나간 일년은 참으로 사나운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의 모임 이후에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실로 삼년만인가 봅니다.

저희들은 통계가족이고 통계는 신속성을 요구하기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뛰지 않는 대국적인 가슴의 소유자라도 자료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식구들끼리의 모임이니까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를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경제는 국제적인 환경여건과 총투자율 증가등에 힘입어 개국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라는 괄목할 작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합심작인 1987년의 우리경제에서, 각 부분의 기초자료를 생산 제공하는데 정성을 기울여 온 우리 통계인의 역할과 기여도 적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계는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질이 뒤따르지 못하였고 경제통계 일변도의 발전은 통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국가의 정책목표가 지역간·산업간·계층간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의 충실화로 전환되었음에도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대부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자제분들을 양육하시며 밥과 빵으로만 유지되는 생명만을 주지시킬 분은 한분도 안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생명을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양의 습득이 부모의 사명이라면, 올바른 통계를 위한 제언과, 조직의 제언에 대한 수렴은 우리들 통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번 경주에서 종합교육사례발표를 가졌습니다. 그 발표에는 조사요원의 보람과 애로사항 올바른 Data의 수집을 위한 제언, 조사시 야기되는 어려운 문제등이 허심탄회하게 토로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지고한 노력이 필요하듯 올바른 통계를 위해서는 조사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조직의 융통성이 훌륭한 통계행정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종합교육 이후 삼년이 지난 오늘 저는 또 그때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뉘두리에 그쳐서는 안되며 「사례발표집」이란 소책자가 되어 조사요원의 책상속에서만 숨쉬면 더욱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자료수집을 위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광공업 동태조사 조사구는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위치한 수출산업공단 제4단지입니다. 공단이 대개 그렇듯이 저의 조사구 역시 소음과 화학약품 냄새등 별로 향기롭지 못한 길이고, 더구나 제 구두를 여덟켤레나 닳아 없앤 길이지만 이나라가 수출입국이 되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데 독특한 몫을 수행한 길이기도 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신(S)도실업주식회사는 저의 조사구 중앙에 위치한 의류제조업체입니다.

450여명의 종업원에 비해 사무직 인원이 매우 적고 바쁜 업무로 피곤해하여 평소에도 조사가 매우 힘들었는데 지난 일년동안에 담당자가 무려 다섯명이나 바뀌고 더구나 세달간은 담당하는 경리과의 인원부족으로 제 스스로가 뛰어다니며 수출담당자, 원재료담당자 등에게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사원들의 불친절한 눈초리보다는 자료수집에의 책임완수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 자리에 여사원 한분이 입사하여 저는 조사주관이 아닌데도 그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요령과 본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한 응답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에 통계국에서 「예측생산량」 관계로 그 업체 뿐 아니라 제조사구의 여러 업체를 방문하였다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느냐’고 묻기도 하였고 어느 업체에서는 무엇때문에 두번씩이나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냐, 나와 당신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보다 훌륭하게 다듬어진 Data의 수집과 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S실업에서는 설명도 통하지를 앓았습니다.

평소부터 가장 사나운 눈초리로 저를 보던 경리부장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응답할 수 없소, 당신도 알겠지만 인원이 없으니 알아서 하쇼.” 하며 사무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부장님께서 뽑지 말라 하시는 자료를 제가 어떻게 뽑느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이 13일 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3일 동안 그 업체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한마디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장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장님의 정중한 인사와 협조의뢰에도 경리부장은 완강하게 거부를 계속했고 마침내 제가 다시 달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리부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회의실로 들어가 버렸고 1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와서, “이 양반 정말 말귀를 못알아 듣네,” 하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계법이니 하는 마지막 카드도 이럴 경우엔 전혀 통하지 않고 대표이사 면담도 그들의 계획적인 저지로 통하지 않고 마감시간은 압박하고…참으로 가슴이 타는 것은 조사요원 자신 뿐일 것입니다.

한참동안 분을 삭이던 저는 사장님을 뵈게 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그 부장은, “아니 일개 말단 공무원이 건방지게…” 하며 기업체의 부장 알기를 우습게 본다하며, “우리 회사에 당신처럼 자료를 뺏으러 오는 각종 공무원들중에서 나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가 저본일이 없어. 당신이 우리회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기획원에 있는 내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빼겠어”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경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는지요.

참을성에 있어서 한없이 너그러운 제 마음은 더이상 제게 참을성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저는 그래 ‘싸워서 지더라도 이나라 통계의 뿌리를 가꾸는 일이라면 싸우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패배의식을, 결백한 사람이 열등의식을, 정도

를 걷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용감한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한다지만 여기서 싸우다 지는 것은 내가 비겁하지 않은 통계인임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원 친구에게 전화를 하던 그 부장은, “내 친구가 미국출장중이라는 데 야, 신앙 저 친구 자료 좀 뽑아줘” 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통계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장조사요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윤리 및 의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응답자나 중간관리층, 최고 경영층이 지켜야 할 전체성의 윤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선진통계를 향하는 우리의 각오 앞에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그 마지막 조사표를 정리한 생각이 납니다.

짧은 생활속에 저의 사례도 제한된 시간내에 발표할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긴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홍보와 처우개선, 그리고 조사의 정도 제고를 위한 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를 가꾸는 우리의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나라 통계의 앞날에 소담스런 열매를 맺기까지 뿌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줄리어스·시이저의 말을 대신하여 동료 여러분께 전합니다.

“장하오, 잘 가시오!”

어 느 날

전북사무소 유 맹 렬

제가 통계조사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도 어언 16년째 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런대로 열심히 조사에 임하였고 또 대부분의 업체는 성실히 응답해 주어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성심껏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항상 좋은일만 있는것이 아니어서 광공업동태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쓸쓸했던 기억 한가지를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릴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업체중에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종업원 20여명 규모의 조그마한 사업체가 하나있었습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자료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자료의 작성이 늦을 이유도 별로없는 그런 사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이하 직원들도 한달에 두어번 찾아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항상 차 대접까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방 조사가 가능한데도 늦장을 부리거나 자기회사에서 작성되는 자료가 커다란 비밀사항이나 되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는 사업체의 담당자나 간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면 이 사람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도 싶은 마음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사시간이 되어 느긋한 마음으로 이 회사를 방문하여보

니 이게 웬 일입니까?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말을 들어보니 세무서에서 경제기획원에 매월 제출하는 조사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더니 세무서에 보고한 실적과 맞지 않는다고 사장을 호출하였는데 사장이 세무서에 출두한 다음 절대로 통계조사에 응답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담당자로서는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며 차후로는 조사에 응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이 통계조사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는 조사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업체 담당자와 더이상 이야기 하여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세무서 직원이 꽤썸하기도 하여 당장 쫓아가 따져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우선 사장부터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사장과 만날 수 있는 약속시간을 정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장을 대면하여보니 얼굴까지 상기되어 상당히 노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한시간동안 설득하여 겨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세무서의 담당과장이 도청에 보고하는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라고 하기에 보고하는 것이 없다고 하자 경제기획원에 보고하는 서류라도 좋으니 제출하라고 하여 할수없이 광공업동태 조사표 사본을 제출하니 세무서 담당자가 세무서 보고내용과 왜 틀리느냐고 따져서 이를 해결하느라고 피해

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조사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없다고 하면 될것이지 왜 통계조사표 사본을 제출하였느냐고 하자 사장은 관공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연락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로 또 한시간을 허비하고 현재의 상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싶어 사장님 제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따져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더니 사장은 간신히 해결한 일을 다시 문제시 하면 회사로서는 더 큰 피해를 입게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국가에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만 업체에 더 이상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음 관할세무서로 갔습니다. 우선 담당과장을 면접하고 사실을 확인한 바 사업체 사장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도청에 매월 행정자료로 보고하는 건설자재생산실적보고였다는 것이고 사업체에서는 잘못 알고 광공업동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를 과세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직접 정상적으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 사장도 수긍하는 것 같았고 통화가 끝난후 과장도 이제는 오해가 풀렸으니 잘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문제없이 조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업체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정작 사업체가보니 이제는 사장이 만나주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

레 방문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관리계장님께 보고하고 계장님과 같이 사장을 만나 보았으나 사장은 자기 마음이 더 풀리기 전에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 수단으로 소장님께 보고하고 소장님과 함께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장의 표정을 보니 나와 이야기 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도 소장님의 한마디 말씀에 잘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질대로라면 사장의 먹살을 잡아 내동맹이 치고 싶은 아니 한방 갈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꼭 참아야만 하는 통계요원 이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미울땐 미울지라도 조사에 협조해 준다는 사장의 승낙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소장님의 지원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사장이 보았다는 피해는 무엇이며 어느정도인가? 왜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찢찢 매면서 경제기획원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의 제출은 그리도 냉소적인가? 어찌하여 서울에서 출장오신 분이나 기관장님이 직접 나오시면 그렇게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조사불응 내지는 응대회피 사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업체를 방문해보면 통계의 간접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직접적인 혜택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는 귀찮다는 듯이 제발 우리 사업체만은 제외시켜 달라는 식의 요구를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의 작성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해준데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짜게 먹은 사람이 물컨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니 좋은 자료를 제공해줄 마음도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통계조사표가 국가의 활동사항을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지표로 작성되고 이 지표들이 국가 및 지역의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양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내가 흘리는 피와 땀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히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해 나갈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해 봅니다.

저의 조그만 경험담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톤 주자를 생각하면서

경북사무소 문종영

저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발령을 받아 각종 통계업무에 종사한지 가엣그چه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 선후배 통계가족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선 조사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는 저 자신 의구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생 살이는 자기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통례라는데, 우리 통계조사업무 역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수집이 사업체든 가구든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격의없는 친밀감은 오히려 경멸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듯이 매달 자기 집 안방처럼 자주 드나 들다보니, 대상처 일부 담당자는 사람을 알아서 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자기업무상에 생긴 굶은 일로 인해 저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나, 도소매 대상업체에서는 이 통계조사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느니 채수가 없다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는, 금방이라도 같이 먹살을 잡고 싸우고 싶지만 뒤돌아 서서 한숨을 쉬고 난뒤 마음에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생활주변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어 조사표 작성을 마치고 사업체 정문을 나설때는 저 자신에 대한 패배감이라 할까, 아니 허탈감 또한 없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사업무를 마라톤 주자에다 비유를 해보았읍니다. 마라톤 주자가 레이스에서 어느 누구하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의 체력을 보완하면서 묵묵히 결승점을 향해 자세 하

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기록갱신을 위해 열심히 달리듯이, 우리 통계가족 또한 대상사업체에 대해 조사업무에 임할적에 마라톤 주자처럼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와 신속하게 모든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메스컴에서 하나의 수치가 흘러 나올적에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잊은듯 뿌듯한 마음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평생 통계에 몸담아오신 존경하는 통계가족 앞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구차하게 말씀 드리지 않고, 이제까지 제가 겪은 경험담을 가슴 펴 놓고 이야기 할까 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현장조사에서 말 못할 사연도 많았고 또한 우스운일도 많았습니다. 인간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향에 있어서의 생활과 생을 영위하는 직장이라는데 저 또한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데 늦가을에 흔히 말하는 외곽지인 경북 영천군 고경면 삼귀동 오지마을인 경제활동 인구조사구가 담당지역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차량운행이 안되어 국도에서 10 km나 도보로 걸어야 했기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가가 많고 산골 오지마을이라서 허구많은 조사구 중에 꼭 이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추출되었는지, 하는 원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겸허한 마음으로 조사업무에 임했습니다. 이조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관청직원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공포심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인지, 솔직한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웠기에 저 또한 고심했습니다. 실례로 가구주가 일제시대때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배급을 더 타기 위해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출생신고를 한 예가 있었으며 아들을 낳으면 장성해서 군에 입대해야 하나까 딸이 출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구에 가구주만 살고 있는

데 이 가구마저 가구주가 말 못하는 병어리였기에 손짓 발짓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적도 있으며, 한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중 나무밑을 지나는데 머리위에 큰 뱀이 “톡”하고 떨어지는데 깜짝놀라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었으며 조사구에서 상가가 있어 분향재배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데 등 조사구 주민들과 유대가 강화되어 가구에 어느집 손가락 수까지 훤히 알고 있을 정도여서, 조사업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특히 동절기에는 국도에서 조사구까지 도보로 걷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려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이만 저만한 고통이 아니였지만 평소 몸에 벤 경북사무소 소장님의 슬로건인 “신속 정확 성실”에 힘입어 참을 인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조사구까지 도달하여 실사에 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든 이 조사구는 표본구역 교체로 인하여 이별하고 조사업무에 능숙해 질때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구미시 공단지역에 광공업동태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경북의 구미공단지역은 전자조립제품 생산이 많아 더더욱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체 담당자와 긴밀한 결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통계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모 업체에서는 사업체 담당자가 조사기간에 결혼을 하여 담당자 없이는 기일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기에, 앞이 캄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 담당자가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이라, 결혼식 올린지 3일째 되던날 인사도 할겸 조그만한 선물을 사들고 안면몰수 하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침 엿그제 결혼한 사업체 담당자가 나오기에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들어가서 결혼을 축하하며 우리 조사업무를 얘기 하니, “아 참”하면서 자기도 기일내에 해주지 못함을 사과하면서

신혼의 단꿈을 뺏기고, 구미의 사업체까지 같이 가서 조사표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령은 이 사람이 그 업체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때 그 정때문에 서로가 안부를 묻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륜을 쌓으면서 일을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하는지, 중요하고 과중한 업무도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여서 인지, 현재는 대기업체인 대구의 제일모직 및 중요한 사업체를 담당수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체들이 우리가 조사표를 마감 제출하는 16~17일까지 조사표 작성이 잘 안되고 지연되면 펙시밀리로 매일 18일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업체 경영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일내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추정치 보고를 하는 사례가 없지도 않았으며 스스로의 책임감 그리고 본부로 부터의 독촉과 담당주임 관리계장의 성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사업체를 방문한 예가 많았습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무능한 사람이라고 꾸짖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통계요원들은 이 자료 하나 하나가 모여 이나라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경제지표가 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라톤 주자가 단 한걸음에 결승점까지 도달하기가 불가능 하듯이, 우리 통계조사업무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나라 경제발전에 보이지 않는 초석이 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면서 몸바쳐 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 계 조 사 의 보 략

서울동부출장소 송 영 남

반갑습니다. 이년반만에 우리 통계가족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매년 이런 기회가 있어 오백여 직원이 좀더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담없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됨에 따른 어려운 점이 많으신줄로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 쓰시고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합교육시 사례발표를 하라는 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망설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계국에 근무한지도 어언 십여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에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지만 요즈음은 스피드시대라 오년이면 강산이 변한다하니 실로 강산이 두번 바뀐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여러 선후배 동료앞에 사례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는지 자신을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분앞에 이렇게 서게됨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선후배 동료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년 열두달을 통계업무 최일선에서 통계자료수집 담당자로서 지금까지 느낀점과 그동안의 조사현장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태평양화학과 태평양제약이 같이 있는 건물에 조사를 하러갔다가 태평양제약에서 12시 10분전 조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태평양제약 응답자가 점심식사 시간이니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다음 방문할 태평양화학을 들릴 욕심으로 시간이 없다하고 태평양화학에 들려 조사를 마

치고 나니 태평양화학의 응답자도 태평양제약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점심식사 시간이니 점심식사를 하고 가라는 호의에 응답자와 같이 사내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저 뒤에 태평양제약 응답자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담당자 말씀이 바빠서 가신다 하시더니 여기서 다시 뵈게 되는군요 할 때는 조금은 멋적었지만 점심식사를 마치고 양회사 응답자와 같이 매점에 들려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씩 나누는데 양회사 응답자분이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정확한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다고 할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정성껏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업체는 응답자와 방문약속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있으면서도 없다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응답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서도 외출중이라며 오후 6시 이후에나 귀사할 것 같다고 할 때 응답자분이 아니냐고 반문하면 아니라고 시치미를 뻗 때는 정말 당장 달려가 먹살이라도 잡고싶은 마음이 앞선적이 한두번이 아니나 통계인으로서 긍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마음 또한 여러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인사를 하면 보는척 마는척 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앉으라는 인사 한마디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사업체 직원들의 눈초리 또한 동정과 멸시하는 빛이 역력하였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자료 수집요원으로서 매일 매일 반겨주지 않는 담당자들을 설득력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료제공을 받아 회사문을 나올 때는 허탈한 마음이었지만 애써서 얻어진 자료가 하나하나 집계되어 수치로 작성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하여 발표될 때와 정부와 학계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는 통계자료 수집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매월 반복되는 대상처의 응답자와의 신뢰 받을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원활히 형성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준점검 및 내검을 마쳐 조사표를 제출 완료하면 날아갈듯한 흥가분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착오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 초조, 걱정으로 부담이 가고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가슴이 탁 트이는 사이다가 아니더라도 한잔의 소주잔을 동료직원과 함께 기울이며 허무한 마음을 달래면서 내일을 향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통계조사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사실 세상에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한줌의 흙이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한줄기의 빗물이 모여 강을 이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전국 통계요원 한사람 한사람이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숫자 하나하나가 국가 기초통계생산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가집시다. 끝으로 통계조사에 몸바쳐왔고 앞으로도 통계발전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보려 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비협조적인 사업체가 많아서 우리를 슬프게도 하였고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스스로 달래며 난관을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사에 임할 때 외적인 예의바른 몸가짐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에 임하는 내적인 지식함양이 우리 통계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기전에 먼저 생산공정을 현장에서 면밀히 파악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 방면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때로는 탁상에서 업무를 담당해온 응답자보다 그 제품의 공정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응답자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최일선에 있는 우리 통계요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를 뒤따

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작성된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 정책이야말로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하니 통계조사의 보람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통계요원 여러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자기개발과 원만한 대인관계

서울남부출장소 김 석 관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자세에서 희망찬 마음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충실한 현재의 생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계획과 자기 노력의 끊임없는 반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보람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만이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추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식이나 능력은 있었으나 개발을 소홀히 하여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물론 퇴보의 일로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 가며 지내는 사람도 주위에서 누누이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에서도 노력이요 둘에서도 노력이요 셋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첨단화 되어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이라해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대상사업체에 출장해서 응답자와의 대화중 조사요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광공업동태나 도소매 동태조사의 목적 하나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 누가 자신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확하고 살아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지적 수준이나 개성이 각각 틀리는 사업체의 여러 응답자나 책임자와 부단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흔한 예로 한가지 들어본다면 사업체에서 생산량이나 출하량·재고량 급여관계 또한 연간조사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결산 관계 장부에 미심한 점이 있어 관계장부를 정중히 보자고 요청할 때에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통계조사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한 좌절감을 여러 동료 직원들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소기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람있는 생애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또 성실한 자세로 미래를 내다 보려고 노력한 것 같이 우리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공무원의 자세로서 냉철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발의 의지로서 원만한 대인관계에 임할 때 자기 발전이 있고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퇴보는 없으며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어려운 역경속에서 굳굳한 용기와 인내로서 통계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 직원간에 서로서로 사랑과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로 연합될 때에 좋은 열매와 많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동료 직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동두천 칠백일

서울북부출장소 박 위 성

새 봄의 문턱인 삼월, 옛 향기 그윽한 이곳 고도 부여에서 전국의 통계가족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쁜마음 금할 수 없군요.

정부수석 부처라고는 해도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가 몇년 혹은 몇십년씩 똑같은 자료를 매월 보고를 받으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려면 어떤 곳인들 조사하기가 쉬운 곳이 있겠으며 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누군들 몇가지씩의 에피소드가 없겠읍니까만 제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평범하다 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작년 모 회사에 들러 조사 실사를 마치고 무심코 걸어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목덜미를 움켜 잡는게 아니겠읍니까? 깜짝놀라 뒤를 돌아다보니 욕심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사기꾼이라며 욕을 해대는 것이었읍니다. 아무리 정신차려 할머니를 살펴봐도 난생 처음보는 노파였읍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람을 잘못봐 착각을 하는가하여 신분증을 보여주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해도 신분증이 가짜라고 우기며 전에도 그런 가짜신분증으로 자기를 속이려고 해서 속았는데 또 속을줄 아느냐며 대로(大路)에서 떠들어대는 데는 정말 사기꾼이라도 된것 같이 얼굴이 벌개질 수 밖에 없더군요. 젊은 남자나 된다면 성질나는것 같아서는 메다 꽃고 싶었지만 할머니라 그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방금 들렀던 회사의 담당자를 불러 대면까지 시켰으나 그래도 믿지를 않고 계속 사기꾼

이라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 가서야 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도 보통사람들 처럼 멀쩡하게 하는 노파가 피해 망상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에 사기를 당한 쇼크로 젊고 말숙한 신사만 보면 자기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로 생각하여 몇번이나 길가는 사람을 끌고 파출소를 돌려 파출소에서도 잘 아는 그런 노파라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났던 마음도 사라지고 불쌍한 생각이 가슴속에 스며들어 씩씩한 입맛을 다시며 사무실로 귀청했으나 그 후로도 그 업체만 찾아 갈려면 언제 또 그 노파가 달려들지나 않나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조사생활 십년이 되어도 조사는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그 두꺼운 지침서 내용을 알려며는 만물박사가 되어야 하지만 지침서 외적인 이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김에 봉변당한 이야기나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서울에서 동두천까지 출장을 나가면 어차피 오전은 시간이 다 지나버려 항상 부지런히 다녀야 대여섯 업체 정도나 돌기바빠 항상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신세를 많이 지고 걷는 코스는 최단 코스를 택하여 다니는데 공교롭게. 홍등가 옆에 사업체가 있어 항상 그곳을 지나 다녔으나 행정봉투를 들고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년이상을 다녀도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것 같아 그날도 무심코 봉투를 옆에 끼고 가는데 갑자기 봉투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어 깜짝놀라 돌아다 보니 그곳의 여자가 내 조사기록부며 실사완료된 조사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채 가지고 집으로 도망가며 집에 들어와서 찾아가라고 집안으로 냉큼 도망쳐 들어가 버리니 봉투를 찾

으러 집안으로 따라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쫓아 들어가 보니 그녀는 벌써 방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찾으러 방에 들어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단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라 신을 신은채로 방으로 쳐들어가서 봉투를 빼앗다 시피 찾아가지고 나오려니 재수없다고 뒤에다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곳에 얼씬 거리지도 말라고 합니 다만 그 래도 저는 어김없이 한달에 몇번씩은 그 골목길을 똑같은 봉투를 옆에 끼고서 돌아다녀야 하였읍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점차 커지다 보니 통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 만 지는데 아직도 사회의 통계에 대한 인식은 전보다 별로 높아지질 않 아 필드에서 뛰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경영주는 표본이론을 좀 안다고 일년정도만 응답을 하면 다 른 대상처로 조사대상처를 좀 바꿔달라고 하고, 건설업 통계조사표 같이 복 잡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말단 사원들은 힘들여 설명을 하고 나중에 찾으 러 들려보면 엉망진창으로 작성을 해 놓고도 몇번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것이 어디 한두군데 이겠읍니까. 게다가 금년 하반기 부터는 표본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니,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표본이 늘어나면 통계적인 확률에 따라 계산해 봐도 전국 곳 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일, 슬프게 하는일,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등 별의별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전천후 조사원인 우리들은 신속하 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한국 통계생산의 최전방의 기초요원으로서의 일꾼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성숙된 자세로 맡은 조사업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모두 다함께 다짐하면서 동료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을 기원 하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 석 이 조

부산사무소 원 성 삼

반갑습니다. 부산사무소 원성삼입니다.

일석이조란 제목으로 소직의 조사현장 경험을 발표하겠습니다.

평소 통계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명승지인 이곳 부여에서 통계조사의 베틀rang인 여러 선배님들의 면전에서 갖 출발한 소직이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직이 조사현장으로 편지가 어제같은데 어언 3년이 되었으며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부산사무소 관할의 울산 북무위탁지로서 저에게는 전혀 연고가 없고 낯선지리로 인하여 몇개월은 아예 비조사기간 이라도 수차례씩 회사를 방문 담당자와의 유대강화와 생산제품의 개념과 조사방법등을 익히기에 바빴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종래와는 달리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복잡다양해짐에 따른 통계정보의 수요증대와 전문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사업체는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선진국형으로 첨단산업 소재 개발로 다량 생산설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신속, 정확하고 정도높은 통계자료의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직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 3개 공단중 전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H그룹의 계열사가 밀집된 곳으로 조선부문 세계 2위의 h중공업에 대하여 조사내용등을 소개코자 합니다.

이 업체의 생산제품 비율은 선박 건조 60%, 각종 프랜트설비, 산업기계 제작이 40%의 비중을 둔 대기업으로 업체의 비중이 실로 막중함에 따라 조사시기가 되면 이번 달도 무난히 처리되어야 할텐데 하고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하는 부서가 6개 부서로 정확한 자료가 입수되어야만이 18가지 지정품목의 광공업, 기계, 건설수주 조사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간의 거리도 3km정도이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여도 자료입수에서 정리, 작성,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방문부서를 일일이 살펴보면,

첫번째 방문부서는 조선사업부의 통계분석과로 선박수주건 및 국·내외시장 현황과약, 선박기종별 당월 및 익월 예측생산리포트의 입수로 저희 기획원에만 제출되는 유일한 부서이며 해당과 직원의 업무과중과 전문화가 요구되어 작년 중순께 통계분석과를 신설케 하는 동기를 부여시켰으며

두번째 방문부서는 프랜트사업본부로 제철, 제강설비, 산업기계제작 그리고 철구조물등을 수주, 생산을 총괄하며 제품별 분류와 수요자분류등 내용의 검토가 복잡다양하며

세번째 방문부서는 총무부로 25,000여 직영 및 하청업체 종업원의 임금과 고용현황 전반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네번째 방문부서는 해양사업부로 오일채취 설비인 자켓, 모즐, 플랫폼프롭과 철구조물의 생산량, 공정도, 수주전망등을 파악해야 하고,

다섯째 방문부서는 원자재의 사용, 잔량현황, 국제원자재 가격의 참고와

마지막 여섯째 방문부서는 첨단산업부문의 로버트개발부 및 중기계사업부

로 로버트와 건설중장비의 최근 시설현황과 시장성, 신규품목의 지정에 대비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중이며,

이상과 같이 6개부서를 방문 12가지의 자료입수외에 회사측은 라이벌사에 정보유출을 우려 기존자료외에 대외비 자료는 철저히 통제됨에 따라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귀청후엔 입수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어려움과 또한 생산과 직결되는 조사해당월의 기후 및 강우량까지도 측우소에 문의 외적인 요인으로 참고해야 하며, 근래 조선업의 불경기로 인한 인원의 빈번한 조정으로 담당자가 타사로 진출될 경우 후임자에게 각종 조사서식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황금과 같은 시간이 반나절 정도는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담당자 및 상급자와의 대화도중 무수한 전문용어의 사용과 경제, 사회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경제계획, 경제용어, 경제현실의 흐름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간 소직이 뒤졌던 학문을 다시 접하게 되어 전문용어의 해석 능력 및 의욕을 배웠으며 어려운 조사현실을 극복하면서 어떠한 여건에서도 통계조사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정신력과 추진력을 현장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였으며 고생은 쓰나 열매는 달다는 명언을 상기하면서 우리 식구 전체의 업무가 이나라의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깨의 막중함과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오늘도 소직에게 주어진 임무에 항상 책임감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간의 친분을 더욱 두텁게 하고 통계의 질적인 향상과 통계요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는 금번과 같은 교육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기대하며 선배님들의 모든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경남출장소 박종규

우리 통계가족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은 경남출장소 거창군에 주재 근무하는 박종규 입니다.

금번과 같은 좋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을 주신 국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본인이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실무담인 통계조사 현장에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인은 거창군 지방에서 출생하여 학교 교육이나 직장생활을 이곳에서 계속 하였기 때문에 조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조사대상업체의 사장이나 실무자 대다수가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시 유대관계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본론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광공업 동태 사업체중에 화강암을 채취하는 업체의 모사장이 일전까지 야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민정당 소속으로 입당한 분인데 지방에서 별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당 소속도 될수 없고 어느 당이든 비평도 할 수 없으며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의 옳고 그름을 두고 그분의 불평 몇가지와 조사에 대하는 자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불평은!

첫째, 경부고속 남해 호남 88고속 등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기

를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무게가 많은 차량이라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하고,

둘째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문제를 앞세우면서 자기들 회사에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째는 지방에서 제방(뚝)을 쌓을 때 자기 회사제품인 석을 쓰지 않고 시멘트를 사용하며,

네째, 자기회사는 세무보고를 성실히 보고하는데 이는 곳 자기만 피해를 보고,

다섯째, 모든 공무원이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매월 조사시마다 들어온 이야기라서 이젠 만성이 되었는지 그렇다고 답변을 아니할 수 없지요.

첫문제부터 풀어 보자면

현 경제사회는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차관을 빌려와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정부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기업체를 위한 길입니다.

현재와 같이 활발성 있는 경제사회에서 중차량운행으로 교통소통 문제도 있거니와 일시적인 도움을 위하여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두번째는 저 역시도 궁금한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업업체는 지하자원 매장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받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를 하겠지만 은행담보 문제로 융자

를 못 받는다니 할말이 없더군요.

금융기관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기 때문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며 본 업체는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연구 검토하에 지불하기 위하여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세제는 경제성과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멘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제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자기 역시 탈세하지 않고서는 몇년 전 선거인단 출마시 소비한 돈을 만회하여 금반 국회의원 출마할 꿈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터라 앞으로도 계속 성실 신고를 할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모든 공무원이 안일무사 주의와 부조리를 일삼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회에는 사회정화가, 직장에는 직장정화 사업으로 공무원은 부정부패가 없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곧 직장정화위원이나 각 기관위민실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만이 깨끗한 사회 올바른 행정이 이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조사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조사는 국가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월별경기 동향분석과 국민총생산 추계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부탁하는 말로 결말을 짓고 조사업무에 착수합니다.

결론으로 통계조사가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든다는것 또 많은 지식을 요한다는 것을 실사시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동 조사에 거부 반응이 있을시 통계법이 강화되어 의무적으로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췄끔 하는 것이 좋겠고 T.V나 신문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는것 같습니다.

금번과 같이 조사원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끔 질 좋은 교육이 차기에도 이행되길 바라면서 우리 통계가족 선배 또는 동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을 바라면서 이만 단상에서 물러 납니다.

화합과 융화의 길은 거리감을 좁힌다

경기사무소 장 하 영

이렇게 잘생긴 제가 이단상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군 담당의 장하영 입니다. 복무위탁지인 군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과 뒷편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인구동태조사 지역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몇 가지만 소개 할까 합니다.

첫째 : 화합과 융화의 길은 거리감을 좁힌다.

군대에서 과견이라 함은 항상 열외로 편한 것이지만 군청에 주재 근무를 한다는 것은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서 하시겠지만 업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경제기획원이란 타이틀이 항상 뒤따라 다니게 마련입니다. 여자가 악담을 하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의견대립이 생기자 도, 사무소나 친구에게 오는 전화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안되고 하루 이틀 보는 얼굴도 아닌데 두 아가씨의 눈총이 오히려 통계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신경이 더 쓰였으니 해결책이란 화해하는 길뿐 별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내용도 메모해 꼭 전해주는 성의를 표시하며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로 출장을 가느냐고 묻는 상냥한 두 아가씨의 얼굴에서 오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군청 직원들과 퇴근 시간에는 가끔 어울리는 좌석까지 되었으니 오히려 도사무소에 나오는 정기소집일이 서먹서먹할 정도로 군청에 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태도나 행

등 여하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 하는한 조그마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도사무소와 군청사무실이 차이가 없는 화합과 융화의 길로서 순탄한 근무의 발판을 구축하지 않겠는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 조사가 잘 되려면 정보가 빨라야 한다.

어느 일에만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컬어 약방의 감초라 말들 하지요. 자기 집안 얘기는 하기를 꺼려하면서 남의 일은 녹음테이프 돌아가듯 잘들 떠들어 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경호 게 요즈음 애인 있나봐 읍에서 봤는데 멋있는 여자하고 다니던데 올봄에 결혼한다지” “아 글썄 영숙이네 엄마가 요즈음 안보여!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더니 집을 나간지 벌써 보름이 됐데” “영식이 그놈은 취직을 한답시고 들락날락 하더니 요즈음은 집에 와있나봐 제간놈이 무슨 취직을 해 참을성이 있어야지 집에서 농사나 짓지” “길영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며 아 그만큼 사셨으면 호상이지 뭐” 더군다나 여름철 농번기에는 응답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이 모든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없는 A급의 정보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되는것은 아닙니다. 종종 동네 구판장에서 거금 천오백원을 투자하고 술을 한잔 산뒤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번째 :이계장님과 장계장

5년전에 군청에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신 이 모씨가 살고 계십니다. 어느날 우연히 조사 나갔다 그분 집에 들렀더니 할아버지 팔순 생신이라나요. 후배가 왔다며 반가이 맞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동네분들과 어울려 술상앞에 앉은 기억은 나는데 집에는 어떻게 왔는지

다음날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침에 그래도 출근은 제시간에 했습니다. 그분도 군청에서 그 혼한 계장도 못해보고 그만 두신것이 한이 되시는지 은연중에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터는 조사만 나가면 이계장님 이계장님하고 불러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며 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저더러 장계장이라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기분이 그만이네요. 그래서 그동네 조사 나가면 동네 주민들에게 군청의 장계장이라 통하지요. 경제기획원 별정 8급에서 군청 장계장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듣기가 낫지요. 그렇다고 제 신분을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임무수행을 하다보니! 또 한가지 취업시간 보조조사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려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뒤가 찝찝한 기분이지요. 몇달전 마음을 먹고 조사표를 가구마다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입요령까지 설명을 하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장님에게 부탁 아침저녁으로 앰프방송을 3회만 부탁했지요. 의외로 조사표 회수율이 좋아 74%에 제대로 기입한 것이 반수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를 일입니다. 자수하여 광명찾은 기분이네요. 조사표 작성하는데 마음도 편하고 조사의 취지와 기입요령만 더 설명 드린다면 회수율이나 효과면에서 훨씬 더 낫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가지 애로점은 왜 이번에는 빈손으로 왔느냐 언제 가져 올꺼냐? 사례품 얘기입니다. 취직을 시켜 줄꺼냐? 남의 한일은 왜 물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조사가 끝나고 공판장에서 주민들과 마시는 한잔의 막걸리는 킁킁했던 목을 그리도 시원하게 추겨 주는지! 이렇게 우리의 조사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마을 주민을 대하다 보면 농촌의 순박함과 인

심에 정이 들고 공적인 입장보다는 사적인 입장에서 하소연도 들어 주고
걱정도 같이 나누는 주민의 한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조사업무는 만점에 가
까운 실효를 거둘 것이며 부정적인 태도로 하기싫다 미루면 더 하기 싫
은 것이 경인조사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할 때 공직자의 보람을 느끼
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략

강원사무소 강 상 익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만나 빈 이후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강원도통계사무소 강릉사무실에 근무하는 강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례발표를 하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첫째는 별반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선배 제현들이 조사과정에서 다 경험했던 통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이 형성됨은 물론 나라살림의 주춧돌이 된다는 인식을 사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나 가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부에게 심어 주고 있는 사실은, 우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중의 한 분야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진 것과 둘째는 각자마다 조사과정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인내와 끈기와 지혜와 성실로서 타개하여 본연의 소임을 다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만 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편의 예시도 여러분의 어려운 체험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웃음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빗방울이 바다를 이루는데 한 뭉을 하듯이 일편의 사건전개가 우리 조사업무에 일조가 되어 국가의 의사결정사항에 현명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이란 그 이상의 영광된 보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능력, 유통가격조사, 도소매동태조사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각 조사마다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제약과 다른 여건상 말은 조사업무전체에 관한 사항을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따르므로 한 조사업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공업동태조사는 우리들이 맡고 있는 조사업무 중 가장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조사라고 생각하므로 광공업동태조사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업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선 조사지침서를 먼저 숙지한 후 사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자신과 용기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가 그렇게 쉽게만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며 또 현실인것 같습니다. 저의 대상사업체 중에는 광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20 km 쯤 가면 버스종점이 있고 거기서 다시 2 km ~ 4 km 정도 도보로 가야 현장과 사무실이 보입니다. 강원도 특유의 험준한 산골인지라 도로도 비포장이고 길도 험악합니다. 사업체까지는 약 3시간 쯤 소요됩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업체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체조사만 끝나면 광공업동태조사는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사업체에 들어서면 먼저 광공업소 소장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생산과장을 소개받고 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계장을 불러서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지시하기에 저는 광공업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항목 등을 설명하고, 계장에게 조사표를 내밀면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생산일보작

성이 되지 않았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게 아닙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사업체를 방문하였더니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소장님과 과장의 협조를 얻은 사항이니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통계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나 동력자원부에 협조하여 자료를 뽑으라면 무슨 통계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귀찮아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잠시후 과장의 얘기가 더 우스운 것은 김계장, 되는 대로 해주지 그래. 하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하는 우리의 풍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조사에 응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더니 지금 바쁘기도 하고 월보작성도 조금 미비하니 다시 오라면서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닭 쫓던 개 하늘 쳐다 보듯이 저는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잠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만약 그냥 돌아가게 되면 모든 면에서 상대에게 지고 마는 꼴이니 늦게까지라도 기다렸다가 답판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으나 좀처럼 묘안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통계란 사업체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시간만 활용해주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응답을 피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한참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계장이 사무실로 들어가길래 바로 뒤따라 들어갔더니 매우 귀찮은 표정으로 아직도 가지지 않았네 하면서 내일 다시 들려 달라고 하기에 저는 통계란 기일내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또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안되니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는 김계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

시고 협조를 하여 주실 분인데 하면서 옆의자에 앉았더니 생산보고만 하면 되느냐고 물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더니 월보를 갖고 와서는 생산, 출하, 재고를 불러주면서 종업원은 한 500명 돼요. 급여는 한 2억되구요. 원재료는 적당히 기입하여 가시오. 하면서 또 일어 서기에 저는 다시 김계장을 설득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만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니 원재료의 구입, 사용, 재고량을 정확하게 그리고 종업원수도 생산직과 사무직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뽑아 줄 것과 입직자, 이직자 및 기타 사무직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조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계장 얘기가 대충 대충 해 가지고 가는지 별 그렇게 성가시게 구느냐고 하면서 입직자와 이직자수는 일보를 다시 봐야 되고 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하니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흐뭇한 것이 이제 90%는 되었다 생각하고 다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험한 산골짜기의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한시간쯤 걸어 내려오니 시내버스종점까지 왔습니다. 저는 시내버스에 올라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통계조사가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통계에 대한 홍보 부족타인지, 통계인식이 잘못되어서인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돌아와 동료직원들에게 오늘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조사원생활 어려워 하겠느냐 하였더니 우리 직원들 얘기는 좌절하지 말고 인내심을 길러 상대를 이기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서 꼭 자료를 뽑는데 성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조사지침서를 뒤져보며 상대의 질문에 대비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통계표도 완전히 알아 놓았습니다. 통계법에는 사업체에서 필히 응답하여 줄 의무

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날에 다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김계장과 통계업무가 아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인관관계로 상대를 끌어 들이게끔 노력하였으며 미리 준비해 간 광공업월보와 사랑의 속삭임이란 조그마한 단행본 한권을 건네 주면서 혹 업무에 필요하다면 월보를 보시고 업무에 짜증이 나시면 그 단행본을 읽으시면서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반가워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난 뒤 여직원을 불러서 커피도 가져오고 생산일지도 가져와서 조사에 응해 주면서 하는 말이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조사표작성에 적극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 상대를 이겼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몇번씩 되풀이하고 사무실을 나올 때 김계장이 어느새 쫓차를 대기시켜 놓고 시내버스 종점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김계장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타협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연하장도 주고 받으며 가끔 퇴근후면 만나서 대포 한잔도 나누고 조사시점이 되면 전화로 월보작성이다 되었으니 방문해달라고도 하면서 통계는 정확해야 되며 기일내에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하여 주고 위로도 해 줍니다. 언젠가는 통계는 대충대충 숫자만 맞으면 된다고 내세우던 김계장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동안 끈질긴 설득과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되기에 얼마나 흐뭇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열번 짚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나간다면 아니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자기일에 충실하다 보면 미흡하나마 조그마한 보람을 찾

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업무라도 성실하게 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만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보람”을 갖고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만 저의 사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인의 금지를 찾아서

충북사무소 김 종 욱

반갑습니다.

몇년만에 우리 통계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모습들을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금년으로 제가 통계조사에 임한지 8년이 되었읍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단순한것 같으면서도 고도의 지식과 무한정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사대상처가 교체되거나 응답자가 변경될 때마다 개척자와 같은 마음으로 정확하고도 신속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온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제가 통계조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소신을 갖은 몇가지를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분야의 지식을 남달리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이 없이 조사한 자료는 복사된 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처에서 응답한 자료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워야만 현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통계숫자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 우리는 항상 부처님과도 같은 온화한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대상처의 양심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의 내색을 쉽게 밖으로 표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응답자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자기완성을 위한 과정도 될 것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야 말로 현대와 같이 각박한 사회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편리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굴욕도 무턱대고 감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정당하고, 그릇됨이 없다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저 자세는 오히려 조사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강제성을 내세울 수도 없고 어떠한 뚜렷한 제재도 가할 입장도 못되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째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장인정신과 같은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통계는 예술 같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가지 일에만 일생을 걸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판소리의 명창이 있고 글씨분야의

명필과 명인이 있듯이 적어도 통계조사 분야에서만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이외에서는 나올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작가와도 같은 집념과 정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조사에 임할 때 정확한 통계 / 신뢰받는 통계 / 선진 통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울의 빗물이 모여 내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우리가 노력한 한방울의 땀이 통계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됨을 생각하고 드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로 넘기려는 사람들을 곧잘 보곤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기가 요원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고 땅을 보아도 떳떳한 사람은 살아있어서 보람될 뿐 아니라 작은 일의 실패는 있을지언정 결코 큰일은 그리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시를 창작하는데서 과학자는 우주의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서 보람과 긍지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통계조사만은 우리가 제일이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또한 통계발전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통계조사원이 됨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사업무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

충남사무소 송영준

통계조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통계가족이라면 누구나 겪어 왔으리라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책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업체들의 생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중앙의 지도방침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첫째는, 절세요. 둘째는, 원가절감요. 셋째는, 품질개발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 첨단기술개발을 요하는 국가적 차원으로 본다면 품질개발이 우선일 것이며. 둘째는, 원가절감이며. 셋째가 절세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감이 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 가운데 어느 한 업체든 세금을 자진하여 많이 내려하는 업체는 많지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세금을 덜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업체중 일부 업체에서는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절세방법에 능통한 경리사원이란 자기가 고용하고 있던 사원을 내보내고서라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기위해 외형을 줄이는가 하면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늘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은 잡비를 늘리고 종업원들의 급료도 현실에 맞지않게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모든것이 절세와 관련지어진다고 볼 때 기업의 일부 자료는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과 맞지않는 그들과의 장부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능력있는 조사원이라면 이러한 난제에 접했을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를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지적하고 사실과 왜곡조사되지 않도록 노력 실질조사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타계하려면 그들의 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시력을 위해 조사원의 능력배양(자질향상)이 필요하며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비밀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사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자신 통계국에 들어온지 벌써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롭고 뜻밖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지만 교육받은 내용으로 실사업무에 임하다보면 지침서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시는 분이나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업주(사업체)측이나 똑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응답자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응답이기 때문에 통계의 신빙성을 믿지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자는 중앙확인점검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고 사실조사와는 벗어난 장부와의 일치에만 신경을 쓰는 웃지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으나 우리 통계가족사이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뿌리박혀 있거나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자는 응답자대로 그들의 비밀이 누설될까 염려하고 실사업무 조사자는 조사자대로 중앙확인 조사에 너무 민감하고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맞지않는 장부의 일치만 가지고 일선에서 실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자를 평가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짧은기간 중앙출

장자들의 현장조사로는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있으며 나중에 보면 오히려 조사원의 조사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더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는 조사원으로써 자질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는 조사담당자와 응답자와의 비밀의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문이나 서면의 비밀보장 보다는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응답자 홍보교육을 각 지방사무소에서 직접 수용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실사확인 보다는 실사지도 측면에서 경제기획원에 속해있는 직원으로써 알아 할 제반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선 조사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요 눈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스스로의 문제점인 자질한계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조사원 동지 여러분!

우리 통계가족은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그렇게 할때만이 우리 모두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올바른 계획도 이루어 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하여 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전직원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통계조사 현장에서의 나의고백

전남사무소 최 등 호

우리의 만남은 오직 이 기회가 아니면 없되는 현실속에서 상면코보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반가움속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속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 농사꾼이 통계가족의 일원으로 첫발을 내딛은지 어언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저 자신이 이 기간동안 무슨 일을 해 왔는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 기간동안 국민앞에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충실은 물론 죄인이 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면서 우리 모두 냉엄한 자세로 자신과 가정 자신과 국가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누가 무어라고 하든 삶의 보람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각인생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신념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인내로 참고 견디며 이론과 실제가 부합되는 행동과 지식을 쌓아오며 자신의 주어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온 통계현장의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해 오며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가교역할을 해온 국가와 국민간의 집배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신속 정확이라는 통계작성 보고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상대를 설득시키고 설득된 자로 하여금 나오

는 자료로 정확도를 측정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을 …… 대화와 설득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조사의 기술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익혀 통계조사의 현장에 접해야 하고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품위, 대화의 자세 등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상대가 누구이든 지적수준을 감안하여 겸허한 자세로 부터 조용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각을 포착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입니다. 나는 항상 조사에 임할 때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상등지 인물은 때려 가르치고 하등지 인물은 추켜세워 가르친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술한 조사현장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보고 공갈을 잘친다고 합니다. 조사란 낱말은 별로 달갑지 않은 낱말입니다. 우리국민은 자고이래로 조사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부드럽고 차분한 표현 즉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실정에 맞는 정책자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등 상대방의 감정을 안정위주에 안착 시킴에 따라 양질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상업체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불응업체로 전락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성실도와 사명감 등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표본지역의 한계와 동일업종의 임의대체는 불가능토록 되어있는 현 소매업체의 조사기준에서는 더욱이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사 업무에 있어서의 대화적 존재와 기술을 두가지로 분류 익히며 임해 왔습니다.

첫째는 나는 언제나 옳고 남은 언제나 틀렸다는 망언하는 아집과 독선

과 편견에서 벗어나며 개방적 정신을 갖는 개방적 자아가 되어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며 둘째는 겸허한 자세와 인내의 덕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이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득이 실패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워지며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무분별과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실무에서는 실패작이 되니까요 우리업무는 다른부서의 업무와는 달리 먼저 인간관계 형성에 따라 좌우되고 업무목적과 필요성의 전달방법이 설득력이 있어야 시기는 물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이에 따른 신속 정확도가 가일층 진행됨을 조사현장에서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조사실무에서는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진 후 실무에 임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다달은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명감을 떠나서 자존까지 버릴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택해야 하고 신중한 계획속에 방문했으나 인사도 받지 않으며 귀찮은 표정으로 대화는커녕 시주들러온 스님의 목탁소리에만 관심을 갖는듯 시주바가지에 동전한푼 건네며 안녕히가세요하고 이사람에게는 앉으라는 말도없이 자기자리로 가서 신문만 보고 있으면서 말도하기 싫으니 어서가시오 왜 하필이면 우리집에만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거요 호된 표현으로 나를 대할때 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겪어온 수모였을 것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떡살이라도 잡고 고탈이라도 쳐버리며 다른 사업체로 대체해 버리면 될터인데 제도상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사상이 다른 남과북의 대화의 시작이 십수년이 되었어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이런 정도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해서야 공직자로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며 이 사업체를 조용히 나와야 했습니다. 이달 - 조사는 응답에 의한 보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매 구입 재고액을 객관적으로 계산 조사표에 이기 보고하고 나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다 방문 일주일후 재방문했더니 또 조사왔느냐고 하기에 무슨 조사를 날마다 합니까? 가방하나 사러 왔오 기왕이면 내가 담당하는 상회에 와서 사는 것이 순리아닙니까? 조사가 미웠으면 미웠지 이 사람이 미움을 받을 이 유가 없지 않습니까?로 대화는 시작되어 물건사는 댓가인지는 몰라도 커피한잔 대접받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대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조사의 목적과 이용도와 비밀보장등의 신뢰있는 대화속에서 간신히 자료는 얻어졌어도 제 자신이 판단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을뿐 아니라 객관성을 참고치 않으면 한장의 조사표는 활용가치가 없음을 볼 때 정확한 조사를 사명으로 알고 10여년을 몸담아온 저로써는 정확한 응답에 의한 조사불이행등 죄의식감은 물론 조사현장에서 위선을 우리에게 만남의 광장에서라도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조사의 중요도와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부실한 조사나 보고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려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부실한 보고에 기초한 정책이 국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모든 조사의 응답자 내지는 사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정확한 응답을 해 줄 수 있도록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앞에 죄인이 되지않고 위선자가 되지 않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양심껏 일해왔노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조사환경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한 조사 창의적으로 일하며 더욱큰 보람을 찾기위해 분투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각종통계 업무의 일원화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사문화 되다시피된 통계법을 실용화하여 법적인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응답해야한다는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경제기획원 주관인 통계조사는 지방사무소에서 총괄지도토록하여 일관된 지도체제를 수립하면 지방관서와의 유대강화등에 도움이 되겠으며 지방사무소의 사기양양의 일환책이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사전에 맛사지는 없다

서울북부출장소 김 옹 분

저는 우리 국민 처럼 비밀 많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슨 비밀이 그리 많고 자존심이 그리 강한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Dutch Pay 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 세상에 친구끼리 Dutch Pay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부부간에 Dutch Pay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말은 가게조사 지역에 가구주는 복덕방을 하고 그 처는 약간의 이자놀이를 하는데 가구주 처에게 가게부를 쓰도록 권했지요. 그 분 말이 자기 부부는 각자 돈을 벌어서 각각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 써서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게부에 쓰게 되면 남편이 볼 것이니 비밀이 탄로되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머니 비밀 노트에 적었다가 매월 말일에 아저씨 안계실때 제가 올테니 그때에 가게부에 옮겨 주세요” 하니 그렇게 하겠다더군요. 저는 다음날 부인이 없을때 그 분 남편에게 가게부를 적어 달라고 했더니 그 분 말씀이 동생들 학비를 부인 몰래 보내주고 있는데 들통나면 안되니까 못 쓴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는 비밀노트에 적었다가 매월 말에 옮겨쓴 후 부인 없을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무슨 울지 못할 비극입니까? 또 한편의 가게부를 얻기 위해 두권의 가게부를 소비하니 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입니까?

또 한곳은 인구조사 지역인데 가구주가 펌프대리점 운전사로 제가 방문하니 운 좋게도 그분은 집에 있었습니다. 학력을 물으니 대졸이라는 거예요. 여러가지로 종합해 볼 때 약간 석연치 않아서 무엇을 전공하셨느냐니까 그것도 필요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못 살리신 것 같아서 묻는다고 했더니 가뜩이나 속이 상하는데 약올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일단은 그대로 왔죠. 다음날 가구주 출근후 방문해서 부인에게 아저씨 정말 대학 나오셨느냐고 살짝 물으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중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자존심이 강해서 누가 뭐라 해도 대졸이라고 말하니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이러한 자존심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 어떤집은 가구주가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업자로 되었는데 학력을 물으니 중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찌다가 고등학교를 못 다니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갔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대로 왔죠. 다음에 다시 가서 부인에게 물으니 자기 남편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출세를 못한 열등감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항상 학력을 낮추니까 비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학력을 높이는 자존심이 있는가 하면 낮추는 자존심도 있으니 심령과학을 배우든지 해서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전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자존심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통계조사시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구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인데 이럴 경우 탐문수사까지 해야하니 정말 모순이더군요.

여러분!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제퍼슨이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신문있는 무정부를 택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가 찬양한 신문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도리어 신문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었으며 신문 읽기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웃지못할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얼마
 전 일간 신문에 모 기자가 쓴 “통계국에서는 통계숫자를 맞사지 한다”
 는 기사를 본후 비분강개를 금치 못했으며 제퍼슨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
 릴 수 있었습니다. 소쩍새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
 었다지만 우리는 한 권의 가계부 한 장의 조사표를 얻기 위해 그 힘
 든 산파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으며 침묵을 금이라고 믿는 그들의 입을
 열게 하고 강철보다 강한 그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갖은 고초도 참았는데 이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우리 모두
 가 그 기자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이
 고 보니 참을忍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표를 가방에 넣고 일선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한
 집은 가구주가 모 대학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이었는데 현
 재는 신문이나 독파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길이 없나를 열심히 찾아보는 중
 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를 보자마자 “당신들 맞사지를 너무해”! 하
 면서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짐짓 “선생님 저는 맞사지라고는 결혼 전
 날 신부화장 하느라고 처음 해보고는 이 날까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
 는데요”? 하니까 “누가 얼굴 맞사지 애긴줄 아시오? 이 신문좀 봐
 요! 솔직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지,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이
 려 수가 있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 것이 왔구나 하면서
 “선생님 신문을 100 퍼센트 믿으십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제퍼슨대통
 령의 일화를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하긴 그래 물가도 오를
 기미가 보인다고 잔뜩 부추기고 말야 그 자들 농간이긴 해” 하시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 “선생님! 저희는 통계법 제 17조를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하니까 “그게 뭐요?” 하시더군요. “그것은요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통계작성의 결과를 고의로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만들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오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징계도 중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저희 사전에 맞사지는 없습니다.” 저는 이말을 남기고 보무도 당당히 걸음을 다음 집으로 재촉했습니다.

사명감과 인내심

강원사무소 성 미 영

정묘년의 봄이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유서깊은 고장 부여에서 선후배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통계 가족으로서 여러가지로 느끼시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리라 믿으며 그동안의 현장조사를 통해 제가 경험했던 몇가지 이야기들을 미숙하나마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업무란 것이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조사가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만이 상대방을 조사에 협조토록 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인간적인 유대가 엿보일 때 진실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곳에 바탕을 둔 면접 원리와 화술, 기술의 방법 등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조사에 응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 직업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질의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문가구의 특성이라든가 가구원의 이름 정도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조사를 담당하는 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응답자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고 저희들이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구의 손주가 새로 전

입을 해왔는데 저는 그 손주이름이 기철인줄 알고 “기철아 잘 있었어” 하고 들어서는데 손주를 업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저를 바라 보시더군요. 그래서 “왜요? 아주머니” 했더니 그냥 계속 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순간 실수를 했구나 싶어 가구표를 들추어 보았더니 기철이란 이름은 바로 아저씨의 성함이더군요. 얼마나 무안했는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나서 우리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집을 방문하면 아주머니는 “우리 기철이 잘 있다우” 하신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했던 저의 찬찬하지 못한 성격과 가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조사하고 있는 지역은 신규 APT 지역으로서 조사 초기에는 현관에서 문전박대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면 목소리로만도 “네 경제기획원 아가씨군요” 하면서 반가이 문을 열어줍니다. APT 조사구를 처음 조사할 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동태 조사지역은 그런대로 순조로이 조사할 수 있었으나만 문제는 가계부 지역에서 불응가구가 많았습니다.

사생활 노출기피와 부부 맞벌이라서 시간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거예요. APT의 주택구조는 외부에서 안의 동정을 조금도 엿볼 수 없는 곳이기에 현관문을 열어 주어야 조사가 되는데 가계조사의 한 가구를 제가 벨을 누르면 안에서 밖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저를 보고도 안에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인기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그러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 그래서 하루는 퇴근 후에 그집 문앞에서 가구원을

만나 뵙기로 작정을 하고 기다리는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났는데도 그분은 오시지 않더군요. 집에는 가야하는데 이제 막차도 끊어졌겠다(저희집은 춘천의 변두리 지역이라서 시내버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것을 제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것 같아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내일 다시 들르겠다는 메모를 현관문의 야쿠르트 넣는 곳에다 넣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아니 누구세요” 이 밤중에 남의 집 문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저를 오도가도 못하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있게 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 위력에 기가 꺾인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와 해야 할 말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죄송해요”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입사한지 1년이 갓 넘었을 때였고 먼저 조사하던 지역은 오래전부터 선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놓은 곳이라 조사에는 별 애로점이 없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여러가지 조언과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맡은 바 책임이니까 아무리 늦었다라도 꼭 임무를 수행하고 가야 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뒤돌아간다면 저 여자는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연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며 저의 소속과 성명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 아가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하시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존심하고 통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자의 자존심에 관한 통계를 내라면 저는 아마 박사학위 딸 만큼 자신있게 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분들이 바로
 맥같은 분들이 아닌가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생활 노출기피라든가 바쁘다는 핑계 등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얕은 마음을 내보이며 이리 저리 피하시는 분
 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했
 더니 그분은 웃을듯 말듯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응접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예의에 어긋
 난 일인줄은 알지만 이렇게 늦은 밤까지 기다리면서 조사를 하려고 한것
 은 그만큼 통계가 나라살림 하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
 로는 잘 못쓰지만 성의껏 적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비협조
 적인데 대한 아주머니의 말인즉 APT에는 외판원들이 많이 찾아 오는 곳
 이라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열어주면 대부분
 이 외판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더군요. 처음부터 이
 일이 있기까지 그 가구를 방문할 때의 기분은 물에 빠진 숨덩이를 이고
 가는 기분이었으나 돌아올때의 제 마음은 에드벌룬을 탄 듯한 가벼운 마
 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불응가구라 하더라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면 상대방도 끝내는 저희 하는 일을 이해하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신
 다는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 된다” 그것은 어떤 어려
 운 일을 타개해 나가는데 통용되는 것이지만 사명감에 가득찬 통계요원의
 인내력에서는 더 한층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가지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에

서 무슨 통계까지 하느냐는 식으로 전혀 통계의 중요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취지를 바르게 인식시키고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의 협조를 하나의 의무라고도 생각하게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조사하는 우리 자신부터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는 공인으로써의 성실한 모습은 봄 바람에 눈 녹이듯 철책을 두른 대화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감을 조성시키는 가교로서의 역할은 저희들 자신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상누각 모래위에 아흔 아홉칸짜리 집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면서

충남사무소 계 회 정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사례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떨리는 까닭은 우리가 하는 통계조사 업무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시간과 연륜이 더해가면 갈수록 힘이드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1982년 1월에 충남사무소에 왔으니까 만 5년이란 세월을 각종 조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처음 조사를 시작할때의 자신감과 자만심은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사치에 불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중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통계조사 업무 역시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쉬운듯 하면서도 한없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저는 5년이란 세월동안, 조사업무를 하면서 별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도 혹은 도 내 다른 조사구와의 인심의 차이로 인한 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얼마전 가계부 연동교체로 인하여 있었던 일들을 꼭 저하나 만의 경험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우리서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분들의 생각과 통계를 보는 관점을 바꿔놓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의식속에서는 자기보다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랫사람 다
루듯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각가정을 다니다 보면 종종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가정 역시 가족구성원 모두가 최고학부를 나왔고, 가구
주 역시 이름있는 사업체의 차장이고, 부인은 가계부 기입목적에 아주 잘
아는 ○○추진위원회 ○○지부장으로 있었으며 지금은 여러가지 사회사업으
로 바쁜 생활을 하시는 가구입니다.

통계의 비밀보장상 구체적으로는 신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조사를 해보았지만 대문에서 고개만 내밀고 불응하는 가구
는 없었습니다.

맨 처음 그 가구에 방문하여 가계부 작성을 부탁드렸을때 고개만 내밀
면서 “우리집은 할 수없으니 다른데가서 부탁드려봐요” 하시며 대문을 쿵
하게 닫고서 들어가는 것이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문앞에 명칭이 서 있다가 되돌아오면서 저 자신
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구로 출근하는 한이 있어도 꼭 정확한 가계부를 쓰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가계부 기입지도를 하기위해 그 가구를 방문하였더니 아주머니
는 계시지 않고 딸이 나와 난모르는 일이니 어머니 계신날 와서 얘기하라
고 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대문을 붙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알아듣게 설명하고 사정도 해보았지
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런걸 해서 무엇하나며 코웃음치는 딸의 모습속에서

저는 물질만능의 배타주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다음날 찾아가리라 생각하면서, 어떤식으로 설득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속에 열심히 책을보며 연구하는 중에 또 하루는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일찍 찾아갔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더군요.
기다렸다면 응접실에서 차대접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분이 저를 기다린 목적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 분은 당신이 사회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가게부를 쓸수 없다면
서,

“대상처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자기가 꼭 쓰라면 거짓말 가게부 밖에는 쓸수가 없다면서 저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사례품을 드려도

“우리 이런것 필요없어요”

필요한 가구에 갔다주고 그 가구를 쓰라고 하죠 하면서 아주 능란한 말 주변으로 불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불응하는 가구들을 살펴보면 귀찮다고 화를 내면서 못한다고 거부하는 가구가 있는가하면 말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거부하는 가구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얼굴이 익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두~서너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친하게 되어 결국은 협조하게 되지요.

또 저의 조사구같이 중하류의 계층이 모여사는 지역에서는 건물생심이라고 사례품을 반복적으로 드리다보면 친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학력과 월등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가 거부할때는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하여 조사원으로써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여기 게시는 여러분처럼 반복적인 면접 방법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기대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이런말을 하였지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계신분이 이런 조그마한 일도 협조해주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와서 사정하는 얼굴을 봐서라도 써주셔야 도리지 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원망도 하였읍니다.

아실만한 분이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통계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분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는 너무했다 싶었던지 웃으면서

“알았어요 아가씨 내가 써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라기 보다는 왠지 허탈한 마음이 들더군요 써준다고 하면서 기대는 하지 말라니? 써준다는 말인가요. 많으셨다는 애긴가요 아마도 궁여지책으로 둘러된 말이라고 생각하는게 옳겠지요.

그후 전 출장을 나갔다가 우연히 시내에서 그 아주머니를 뵈게 되었어요. 쇼핑나오셨다는 말에 아주머니 시내에서 뵈니까 반갑다며 수다를 떨

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차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며 좋다고하여 조용한 찻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며 여러가지 물어보시더군요.

저 역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였더니 그 분은 “아가씨 그 마음 때문에 가게부 쓸터이니 이젠 걱정하지 말라시며 방문조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시며 저에게 격려해 주시더군요.

우리가 종사하는 통계가 좀더 정확, 신속하고 수준있는 통계로 만들려면 이런 가구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 설득 방법을 연구하여 사례집 같은것을 만들어 참고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말 가게부가 아닌 진실된 내용이 담긴 가게부 작성이 되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유 리 컵

서울동부출장소 황 명 화

이렇게 많은 사람앞에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런지 무척 떨리는군요. 더군다나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게 혹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되거나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됩니다. 별로 신통한 내용도 아니고 또 여러가지로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1 : 1로 상대해서 소기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일인만큼 우리 혼자만의 창의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마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발이 닳도록 다니며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와 응답자간에 순간적으로 교차되는 텔레파시가 있게 마련이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가 되는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조사원 생활이 약 14년 정도 됩니다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사람도 있

있고, 그런가 하면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속된 말로 골치 아픈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람들의 유형을 유리컵처럼 맑고 투명한 사람과, 벗겨도 벗겨도 껍질뿐인 양파같은 사람으로 분류하고서 조사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까지 조사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맡은 조사구의 한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살때 전임자인 선배 언니로부터 조사구 인계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혼자 가구방문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몇 집은 선배 언니가 그동안 애써준 덕분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지요. 어느 한 집을 방문하니까 40대 여인이 나오더니 왈 “허구헌 날 인구조사는 해서 무얼하느냐” 또 “인구조사는 동서기가 하는 것이지 너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냥 집안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표는 제 손에서 떨어져 땅바닥위에 볼품없이 내동댕이쳐져 있었고 오직 움직이는 것은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다시 아까의 그 여인이 나오더니 기절할 듯이 놀라며 내 손을 잡고 자기집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과일을 가져온다 과자를 가져온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다 계시냐” “아버지는 뭐하시는 분이냐”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며 제가 해야 될 인구조사를 도리어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습게도요.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한참 대답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아니 인구조사는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주머니께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어머니와 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포부, 앞으로의 희망같은 걸 이야기 하였더니 나이도 어린테 각오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겨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아주머니의 격려와 협조덕분으로 별 어려움없이 조사를 할 수 있었던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만약 그 아주머니께서 안계셨더라면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을 것이고 조사통계국하고는 인연이 끊긴지도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하기가 그때는 옛날이고 제 나이도 어렸으니까 그랬지, 요즘같으면 그만한 일로 눈물같은 건 흘리지 않았을 것이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테지만요.

그동안 십수년간 이러한 생활을 해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을 끊고 살자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인간적으로 접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다르게 아니고 진실과 성실뿐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처럼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무엇을 담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진심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어 벗겨도 벗겨도 껍

질뿐만 양파같은 사람들도 유리컵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별로 새롭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

서울서부출장소 홍종희

안녕하세요!

서울 서부사무소에 근무하는 홍종희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진국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데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실감하면서 그것에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당당함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큰 추위가 없었던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면 날씨와는 관계없이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사업무를 하게 된지도 어언 10년……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이나 갖가지 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10여년전 제가 통계국에 근무할 때 조사요원이 되기를 갈망하다가 발령을 받고 기뻐하던 때……

실재 조사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 자유롭고 편안한것 같았던 조사업무가 몹시 힘들어 제가 뭔가 잘못알고 있었구나 하고 우스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조사업무를 해오면서 보람과 회의로 연결된 일들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지역은 서대문구 홍은1동 산71번지로서 이71번지는 약 100가구 정도가 있는 비탈진 산동네로 우체부 아저씨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지역입니다.

수년전부터 재개발이 된다고 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처음 대할때는 못하는 사람들의 설움에서 거부를 당했고 조사시작 2년 8개월이 되어 친하게 되었을 무렵 다시 APT 신축지로 발표되어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함과 또 어려운 형편에 옮겨야 하는 고민에 지나 주민들은 같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게 힘이 있다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과 관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간다면 개인의 어려운 문제로 부터 나아가서는 나라 살림에도 훌륭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또다른 조사구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흥은1 동사무소를 찾아가 사무장에게 현실을 전해드리고 새 조사구를 만드는데 협조를 구하여 현지역과 유사하고 3년 내에는 개발이 되지 않을 지역을 선정했으나 조사시작 1년 6개월 후 또다시 제3 조사구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개발이된 구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이구역 생활수준이 중상은 되는 주택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중에도 한 가구는 아예 질문에 응해 주지 않아 인구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번 방문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부인은 외출중이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장녀가 시험시간중이라 일찍 와서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도 금방이라도 그 부인이 돌아올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 이후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조금은 두려웠지만 최상의 반가움을 표시하며 인사를 했더니 전에 있었던 어려운 자세를 풀고 자기도 무안한듯

인사를 받으며 대화에 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터웠던 벽은 무너지고 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 하듯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기 전에는 쌀쌀함과 도도함이 저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했지만 조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이 처음 우리에게 대하는 냉담함을 우리의 입장과 사명을 잘 설명드리는 동안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공감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까지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의논하고 저 또한 그분들을 염려하며 조금은 기억속에서 떠나지 않을 서로로 남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조사지역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으로 무거웠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가볍고 상쾌한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더욱 그분들과 인간적으로 깊은 유대를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 정을 더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 더욱 돌아오는 길을 상쾌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떠나는 길도 가볍게 하리라 믿으며 우리가 작성하는 통계자료가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과 웃음의 조화

서울남부출장소 박 찬 희

국민의 공복으로 통계현장의 일꾼으로 일해온지 어언 18년 그 동안 내가 작성한 통계자료가 이 나라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 하였나 되돌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희비의 순간들 현장 조사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9 년도에 대구에서 조사요원 발령을 받고 3년여 근무하다가 73 년도에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인정이 매마르지 않은 고향인 대구에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서울로 와보니 모두가 마냥 낯 설기만 하였습니다.

이웃도 모르고 사는 서울 생활에 우선 나 자신부터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길만 건너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돌아서면 또 낯선 곳이고…….

그런 가운데 처음 맡은 지역이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저탄장 주변이었습니다. 생활의 전쟁터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거추장스럽고 귀찮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소득층 서민들이라 저의 설득력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특유의 억양으로 아주머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들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인 만큼 거짓없이 사실대로만 기재 해 주이소 잘 부탁 합미데이.

실질적인 법의 뒷받침이 없는 우리의 통계조사는 어디까지나 협조 요망

사항이니 만큼 인내와 끈기 없이는 우리의 목적 하는바 자료를 수집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즈음은 그나마 홍보를 통한 사회 인식으로 많이 계몽되었지만 15년 전인 그때만 하더라도 통계 인식이 잘 안되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신림동은 상가로 지정된 구역이라 여관이 20여개 정도 밀집된 골목입니다.

조사에 협조하고 안하고자 문제가 아니라 대낮에 여자가 여관에 들락 날락 해야 되니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보지 않을까! 만약에 보고 오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큰 걱정거리 랍니다.

한번은 새로 개업한 여관에 들어가 조사를 하려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나오더니 아줌마 어디에서 왔어요! 신분증 좀 봅시다. 전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요모 조모 공무원증을 보더니 아줌마 오래 됐어 7급이구먼 괜찮은데 키도크고 체력도 좋습니다. 하고 빈정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업무상 뛰쳐 나올수도 없고 꺾꺾 눌러 참고 있다가 화제를 바꾸어 조사에 임하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뜨거워 혼이 났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을 조사요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번은 광명시 철산주공 아파트 단지내 새로 이사온 전입가구 조사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가씨 2명이 이사왔는데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드라고 앞집 아줌마가 귀땀해 주었습니다.

원래 그집은 이사오는 가구마다 꼭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의 집이 었습니다.

초인종을 몇번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선 앞집 아줌마께 조

사표를 좀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줌마께 전화를 했더니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면 만날 수 있을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안에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곧장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누구시냐고 묻길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인구조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아무런 반응없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못한다. 한다. 말도 없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다.

우선 사람을 보아야 설득이라도 할텐데 대꾸가 없으니 우두커니 문전 박대를 당하고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그날도 또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날며칠 제출날짜는 가까워 오고 전입은 것을 알면서 누락시킬 수도 없고 반장, 통장을 찾았지만 역시 허사 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자 직원에게 부탁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했더니 센서스가 끝난 뒷끝이라 동사무소에서도 직원을 내보내어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이 핑계 저핑계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다. 하는 수 없이 그날은 퇴근하여 집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고 9시가 가까워 택시를 타고 조사구로 향했지요. 불이 켜진것을 확인하고 4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더니 안에서 확인을 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어코 담 판을 내려고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시커먼 복장을 한 경비원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 알고 방망이를 차고 4 명의 경비원이 쫓아 올라 왔습니다. 아주머니 뒤흠하는 사람인데 저녁늦게 아파트에 와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대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인구조사 때문에 누차에 걸쳐 낮에 왔었지만 번번히 주인이 아니라고 문전 박대를 하니 오늘은 할 수 없이 저녁에 진짜 주인을 만나서 꼭 조사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 2 명이 나를 쳐다보니 딱 하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내려갔습니다. 다시한번 내신세가 초라 해졌습니다. 나머지 2명의 경비원이 내뜻을 알고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하였습니다.

아가씨지 아주머니지 신분은 알아야 보호를 해 줄것이 아니냐! 문을 여시오!

경비원이 거듭 재촉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문을 여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무조건 밀치고 들어 갔습니다. 기분상 오늘은 도저히 해 줄수 없으니 또 다음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경비원의 도움으로 겨우 설득하여 조사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 보았더니 15평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게 피아노며 고급쇼파며 오디오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가구가 정상적인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일에 비협조적인 가구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들 입니다.

저의 추측대로 그 아가씨는 아들도 하나 있는 미혼모이면서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의 첩이라는 것을 주위 아줌마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후 이사 온지 서너달만에 사생활이 노출될까 두려워서인지 이사를 가버

린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고 남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떳떳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울고 또 울면서 웃음 꽃을 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좋은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진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친우며 며느리며 누나 언니가 되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문제 부부관계등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때 그들과의 대화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충분히 찾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설령 그들이 나를 문전박대 하더라도 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인내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통계자료 수집에 나의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과 웃음이 조화를 이루는 현장으로 달려 갑시다.

별을 바라보며

부산사무소 김 양 주

안녕 하십니까. 부산사무소 김양주입니다.

여기 여러선배들을 모시고 제 체험담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활동인구 조사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소 바쁘요” 326 조사구 첫 인사는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특유의 억센 말투와 태도에서 벌써부터 잔뜩 겁부터 먹고는 조사구 갈때 마다 발걸음이 제대로 안떨어지는 심정 여러분은 잘 아실거예요.

부산 사상 공단에 자리한 조사구인지라 33 가구중 30 가구가 낮에 가면 텅텅 빈 집들 문 잠잠졌나 확인하러 가는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계조사의 회수율은 16개 가구중에 겨우 2권이 회수 됐어요.

전 직원이 회수율 높이느라 애쓰는데 전 겨우 3조사구를 합해서 55.1를 턱걸이 했답니다. 갓 입사 했을때야 아무 것도 모른다 하구선 언니들께 신세도 많이 졌지만 마냥 그렇게 사무실 전체에 누를 끼쳐서는 안되겠다 싶었어요. 열심히 하면 결과는 주어지리라 생각했죠. 마침 집이 그쪽 방향인지라 퇴근을 집으로 하지 않고 조사구를 들러서 가기 시작했죠.

“경제활동인구 조사 나왔습니다”

“저번에 동회에서 인구 조사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인구 조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노”

“이번 인구 조사는 동회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아이참, 아가씨가 우리 저녁밥 해줄라요? 오자마자 밥하라, 빨래하라, 바쁜데 왜 귀찮게 구요? 시간많은 사람 이것 저것 잘해 주니까 다른데 가서 해 가지고 가소”

“아줌마 만나 빌려구 퇴근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정성 봐서라도 협조 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아줌마 해끼치 겠어요? 다들 잘살려고 그러잖아요. ”

“인구 조사 잘한다고 우리 식구 밥을 먹이주요, 돈을 주요, 나는 내한몸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가소”

이렇듯 거절 당하기가 일쑤인데도 공무도 공무지만 이 사람들과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오기가 솟던 걸요.

현장 조사가 어렵고 고생스러운것은 어찌 저 혼자만의 일이 겠습니까 만은 서너살 밖에 안되는 애기들만 남겨두고 직장 가버리면 세수 제대로 안한 얼굴로 온통 어지럽힌 방 귀퉁이에서 잠들고 있는가 하면 잠깨어나 보면 없는 엄마 찾아 울고 있는걸 볼때 마다 어찌나 하던 망설임이 선뜻 코 닦아 주고 과자 사먹으러 가자고 일레며 세수도 시켜 줄줄 아는 조사원이 되어 간담니다. 꼬마 붙들고 앉아서 과자 사 먹은 것, 아침 반찬 먹은것 물어 품목만 적어 놓구선 저녁엔 아줌마를 만나 금액을 적기도 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죠’

엄마 대신 세수 시켜주는 가게부 아줌마가 좋았던지 가게부 적으라는 꼬마들 등살과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함뿍 담긴 가게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첫 집에서 끝 집까지 졸졸 따라 다니는 꼬마들이랑 같이 인구 조사도 하고 가게부도 같이 하면서 “내 밥 먹여주면 가게부 써 주세요” 하던 아줌마네 집에서 누룽지도 나눠 먹으며 집집마다 정다운 인사 소리와 함께 회수율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물건 팔러 다니는 장사치 처럼 제대로 말 꺼내기도 전에 문전 박대 당하는 일쫓은 아무것도 아닐텐데 이렇듯 이러이렇게 일했노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걸음마 배워가는 아기처럼 5년 8개월 현장 조사는 늘 어려움뿐 이지 만은 따스한 인사 한마디가 각박하게 살아가는 아줌마들 훈훈한 마음씨로 끌어 들인다는 또 다른 사명감을 간직한 채 여러 선배들 앞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뛰는 조사원이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후회없는 하루

경남출장소 김 계 희

저는 1985년 5월 6일 늦봄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남출장소에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안은 채 첫발을 디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정치·경제 시간을 통하여 행정조직을 배우면서 경제기획원이라는 기구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산하외국인 조사통계국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곳에서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대한 인식 아래서 처음 얼마간의 사무실 생활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면서도 의혹 투성이의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을 위한 책무와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실천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속의 다짐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남출장소에 첫 출근하기 이전에는 T.V나 신문지상을 통한 통계발표는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 통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경남출장소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였고 사무실에서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얼마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현장업무 교육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렵פות이나마 어떻게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인생의 여러길 중에서 한 길의 중간을 걷고 있을 때 였으며, 다른 생각보다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통계국 경남출장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저의 인생에는 길이 만들어졌고 그길의 반은 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각종 업무 지침서를 숙독하면서 업무도 빨리 파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함께 여러 선배 직원들의 덕분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손에 익숙해지고 사무실 분위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조사구를 배정받아 제 손으로 직접 조사표를 만들어 직접적으로 통계업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료 수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조사구의 입구에 서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배운것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로 날아 갔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잠시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첫 번째 가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남출장소에서 나왔는데요”로 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생각 나는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가구의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묻는말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이야기 해주시면서 수고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아주머니의 말씀에 힘입어 첫날 조사구 방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도 우리나라 조사통계에 하나의 자그마한 기여를 하게 된 것이 무척 기뻛고 마음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통계조사라는 것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몇 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마다 특성과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가구에도 가구마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구에도 가구마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구는 온갖 좋은 말을 해도 문전박대하고 어떤 가구는 제가 아는 총지식을 동원설득해도 들어 주지도 않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그냥 돌아 서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냥 그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래도 한번만 더 설득하자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한번더 진실된 마음으로 설득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몇 번을 더 방문하면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쌀쌀하게 대해 주던 사람들이 차까지 끓여 주면서 반겨줄 때는 기뻐 어쩔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칠전팔기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고 나도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데는 각 가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아직 통계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인지 일선 현장에 나가면 종종 곤란한 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여직원의 경우에는 도시가계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 하는데 도시가계는 인구동태와 경제활동 지역과는 달리 각 가구에서 직접 가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에서 가계부 기입하기를 거부하고 부부 맞벌이 가구는 몇번을 방문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없이 퇴근 후 늦은 밤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저희 여직원이 컴컴한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때는 막막함과 동시에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원 생활 8개월만에 경남 충무시 조사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충무시 3개조사구가 산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였습니다. 거의 모든 가구가 저소득층가구, 부부 맞벌이 아니면 주부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이라던가, 주부가 글을 모르는 가구가 많아 안타깝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쪼들리고 쫓기며 살아가는 가정이라 통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통계 조사가 우리나라 경제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몇 번이나 설명을 해도 그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외면할 때는 정말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알려고 애쓰기 보다는 먼저 여기 사람들 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몇 번을 그냥 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진정 그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며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도 보고 세상살이의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며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까이 조사에 잘 협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분한 도움은 저에게도 더욱 의욕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가볍게 조사구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나날이 계속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통계조사에 익숙해

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시련과 곤란이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통계 조사요원 생활이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도 없고 또 여러분 앞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기에 배우면서 일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결코 후회할 수 없는 날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발을 디딘지 어언 2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는 세월이지만 저로서는 무척이도 긴 세월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 후회없는 날들로 채워보렵니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날그날에 충실한다면 결코 후회라는 말은 없어질겁니다. 앞으로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꾸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데 힘쓰겠습니다.

경북과 경기와의 조사 비교

경기사무소 이 정 미

안녕하십니까?

수원소재 경기도 통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 정미 입니다. 몇년전 경북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이런 자리에 섰었는데 지금 초면인 사람도 있고 구면인 분도 많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된것은 여러분과 함께 통계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재정립하고 조사통계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부분이나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86년도에는 국제수지흑자를 기록했고 일인당 국민소득수준도 2,000 달러는 이미 넘어 섰습니다.

과거 대기업주도형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활성화에서 첨단기술이나 소재개발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경제정책 역시 고도로 과학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역시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살림과 후손에게 더 좋은 복지국가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오늘 저는 국가경영정책의 기초자료 수집 일선에서 하나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경북지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몸에 베어 최초의 타지방 근무지인 경기도 사무소에 전보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바로 언어소통, 의사전달이었습니다.

전국의 일일생활권화로 하루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실정에도 워낙 몸에 베인 사투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될수 있으면 경상도 사투리를 억제하고 표준어를 흉내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제 말씨도 많이 교정되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가구의 호응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조사대상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이 산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의 정이 희박해지고 조사협조에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가정방문 외판원의 등살로 가구에서 외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짙어 정부시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 또한 미흡한 것 같아 대상가구의 설득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통계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조사대상에 대한 지역별, 조사업무별, 구체적인 사업홍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조사통계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조사통계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국가차원에서 통계의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힘들게 현지에서 조사된 모든 사항이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사람과 인간사이

인천출장소 이 영 주

여러분 사람과 인간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업무,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료수집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댓가입니다. 저는 부천시 성곡동 조사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홍도시의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사요원 생활 처음으로 올었습니다.

각 조사구의 특징은 다 있겠지만 낮시간에 방문하여 만날 수 없는 가구는 밤시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집에 계시면서 대면 할수 없는 가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가구는 그 동네에서는 어느정도 유지인 가구였습니다. 처음 그 가구를 방문하여 대문노크를 했었을 때 대문은 고사하고 현관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여 인타폰으로 우리통계의 중요성과 그 목적을 말씀 드렸지만 그때마다 굳게 닫힌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상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도 인구조사는 고사하고 아주머니의 얼굴 생김새도 구경할수가 없었습니다. 한심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 그리고 분노에 뜨거운 눈물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그후 가계부 회수차 그 조사구를 방문.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다시 그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문은 열리지 않고 자기는 그 집

의 큰며느리인데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간호하러 서울에서 왔다면 인구조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동안 미운마음과 원망이 함께하여 저는 알수 없는 마음의 회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병원을 다시 확인하여 약국에서 박카스 한박스를 구입하여 문병을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의 갈등은 지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역정을 내면 어쩔까 하는 두려운 마음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맞이하는 아주머니. 그 후 다시 그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그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반가이 맞이하는 아주머니. 그 후 인구조사는 물론 가계부 기입도 아주 잘 협조해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항상 인자하신 엄마처럼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며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보와 치우개선 그리고 조사의 질의 제고를 위한 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를 가꾸는 우리의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통계의 앞날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그 뿌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을 나누며

충북사무소 원 용 숙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경험과 고충과 기쁨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의 충주시에서 복무위탁근무를 하고 있는 원용숙입니다.

충주하면 충주 다목적댐이며 가까이엔 수안보온천이 있는 곳으로 사면이 물길로서 싸인 호반의 도시랍니다. 물이 좋아 인심도 좋은 곳이지요. 제가 맡고 있는 조사구는 충주시에서도 영세한 가정들이 사는 곳으로 우선 대문을 잠그고 있는 집이 거의 없답니다. 대도시에서 겪는 대문앞 설움을 저는 모르는 셈이지요. 저는 이자리에 서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았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달전 12월초에 한 가정이 조사구로 이사를 왔읍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통하여 가구표를 작성하려니 아이들만 셋이서 사는 가정인데 가구주로 가장 큰아이가 20세이며 조그만 개인사업체에 다니고 있었으며 16세의 중 3짜리 여학생하고 막내가 국민학교 6년으로 엄마는 가출하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의지가 대단하였지요. 그래서 속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며 가계부를 기입하라고 주었지요. 한달동안 가계부를 기입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 부식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었더니 이웃아주머니들께서 다투어 반찬등을 보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달 가계부 조사를 하는 동안 기입지도차 나갔을 때 큰 아이가 집에 있

어서 웬일인가 하였더니 직장이 폐업을 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사서 때던 연탄이 완전히 떨어져서 한개도 없었습니다.

불이 없는 방에는 온통 이불을 깔아놓고 그속에 들락날락만 하며 지내고 먹는 것도 형편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이웃 도시가계조사가구들을 들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그집 아이들 얘기를 하였더니 알고있다 하시며 먹을때나 잘때에도 편치 않다 하시며 이웃 분들과 의논해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도울수 있을까 하여 동사무소와 복무위탁지인 시청엘 들어가서 사회과 복지계를 통하여 영세민 수혜대상가구가 될수 있나 알아 보았지요. 가출한 엄마가 세대주로 있어 영세민 수혜 대상가구로도 어렵고 소년가장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부락을 드렸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그 가구엘 들렀더니 차곡차곡 연탄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청에서 이렇게 빨리 갖다주었을까 하였더니 이웃 아주머니들께서 얼마씩을 내셔서 연탄을 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가며 부엌도 가끔 치우고 청소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 겨울 춥지만은 않게 보내게 되겠지요.

요즘 사랑의 부재시대니 하며 공허한 사랑말만이 떠도는 가운데 잘살지도 못하는 이웃분들께서 도움을 주신건 사랑을 나눌줄 아는 그분들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이지요. 그 이웃분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요즘 어린아이 다 다니는 유아원 조차 보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눔은 통계조사차 가구를 방문하며 볼 수 있는 게지요. 조건없는 사랑을 나누는 멋진 저의 조사구 분들과의 통계조사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경제기획원이 뭐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던 그분들께서 요즘은 통계조사는

사실대로 대답해줘야 된다고 성의껏 대답해 주십시오.

조사구를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건 통계조사와 더불어 진솔한 사랑을 나누려, 배우러 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 내 속 의 지 혜

전북사무소 최 순 옥

세월은 유수라더니 제가 조사원에 몸담은지도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통계국에 있을때만 해도 조사원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 가구 한 개인을 만나 설득하고 조사하면서 인생공부와 더불어 보람을 느낀적도 많았지만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조사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경제활동 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방문하여 보조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려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조사에 응답할 수 없으니 그냥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험이 많은 남자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다음날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파출소까지도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여 증명서와 조사표 양식을 보여주며 순경에게 설명하는데 뜻밖에도 이 순경은 경제기획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나?며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경제기획원을 모르다니 아마도 이 아주머니가 우리를 수상한 자로 신고한 것도 무리는 아닐성 싶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집 주인은 자가용 트럭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떼떼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떼떼치 못한 사람이 응답에 불응하기 마련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였던가 도시가계 표본지역이 교체되었을 때 인구동태 표본 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적격가구수가 20가구가 되는데다

낮설은 곳이라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주라는 조사구는 그래도 중류층 도시로써 대문이 잠겨있는 집이 드물었지만 그 가게지역만은 대낮에도 대문이 잠겨있어 힘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가게부 회수율이 겨우 68% 회수율이 너무도 저조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주부들은 가게부만 써주면 되는 식으로 생각해 정말 난감했습니다. 회수할 때 쌀은 얼마나 소비하세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부만 써주면 되지 남의 집 사생활 까지도 다 알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버럭내는 아주머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자주 방문하는 것과 가게부는 뒤로 미루고 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달 어언 몇달 지금은 회수율이 80%를 웃돌고 보니 노력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대화가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속에서 부딪치고 설득하고 그럴때마다 인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장 한장 조사표가 내 손안에서 피와 땀으로 완성될 때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성실한 조사자료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직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

전남사무소 국영숙

고란사의 봄과 더불어 여러 선배 어르신 및 동료 후배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일선 현장에서 통계조사업무에 임하여 체험하고 느낀 경험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람마다의 개성 및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어려운 숙제보다도 더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못되는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뇌까리며 원망아닌 원망을 해가며 오늘도 가구를 방문하는 내 발길은 무겁기만 하답니다.

초인종을 눌러 “경제기획원 조사원입니다”하고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까닥” 인터폰 수화기를 놓아버리는 내 마음 같지 않는 야박한 인심에, 터져나오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슬퍼지고 기가막혀 버립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방향 감각을 잃고 어쩐지 왜소하게 느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지요. 혹 주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지나 않나 하고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두리번거려집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다짐하는 소리가 노크하지요. “좋아 나도 끈기가 있는 여자라구!”하고 굳은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벨을 눌렀을 때

“참 기가 막혀 맥이 우리 집안 살림해 주려고 이것 저것 캐묻는 거냐”며 절대로 가계부 기록에 협조 못한다고 큰 소리치며 벼락치는 문소리

통계의 중요성 및 이용도등 조사원의 설득일랑 아랑곳없이 대문 밖으로 밀쳐내며 샅대질하던 돈 꽤나 있는 부유층 마나님들의 콧대높은 축객행위! 이때처럼 서글픔을 되씹으면서

아!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사명감이라고 자부해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시름에 빠졌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그럴듯한 진리를 생각해 한발을 더 뛰기 위하여 두발을 물러선다는 전략 아닌 각오를 다짐하면서 되돌아와 다시 하나 하나의 방안을 체크해 봅니다.

조사구의 특성에서부터 가구주의 직업소득수준, 연령층, 가족관계, 성격 심지어는 응답자의 세련미 눈동자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에 상대를 그릴 수 있을 때 뭔가 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재 방문하였지만 태도는 여전히 더 완강하게 거부하기 일쑤지요. 아무리 자존심을 먹칠당하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미소와 자세로 꼭 참으며

“죄송하지만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한 마디 했을 때는 참 기가 막히다는 표정입니다. 능청맞게 한술 더 떠서 차 한잔 주시라고 얘기도 해봅니다. 순간 집안 분위기며 취미 생활이 좋다고 칭찬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란 이상 야릇한 것이어서 조그마한 칭찬과 관심에도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가 봅니다.

상대편에 부합될 수 있는 얘기를 두어시간 한 이래 자유스럽게 우리 취지에 대해 얘기하면 다른 도나 시는 통계자료가 100% 협조도가 높은데 이런 불응가구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하며 체면에 관한 얘기도 해봄

니다. 부정적 요소가 조금이나마 긍정적 측면으로 바뀔때 과일이며 오히려 격려하지 해 주었을 때의 성취감이란 그야말로 값진 것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절대적인 면접거부일 때 남자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설득했지만 응답하는 가구에서의 협조도는 마찬가지로 었습니다. 여자란 같은 여자가 질문 하면 응답해주시도 않던 얘기도 남자가 물어보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렇게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에서 통계의 목적을 경청하는 듯 싶더니 한번쯤 끝까지 반대해보죠. 남편이 하라는 것도 못 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남자 직원까지 동원해서 자주 찾아온다며 이렇게 끈질긴 아가씨는 처음 보았다며 다음부터 협조하겠노라고 답변해 주었을 때,

또는 다른 경우 주부를 상대해서 안될 경우 가구주의 직장으로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꽤나 사회단체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분들도 우리가 애기한 통계목적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부인 못지 않게 협조 못하겠다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더군요. 그리하여 만약 조사에 협조못해 주시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쇼파에 주저 않아 버리니까 주위 사무실 분위기며 체면 문제도 있고 뭔가 해보겠다는 우리의 자세와 성의를 깊이 사췄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결혼해서 지금껏 부인에게 한번도 주지 않았던 봉급명세서며 적금목록까지 작성해 주시더군요. 더구나 가정으로 전화해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함께 책망했을 때 미안함과 함께

“우리는 승리자다. 이겼구나 이때가 바로 우리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았을까요.

꼭 운동선수가 또는 게임에서 우승한 자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현직조

사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조사는 응답자의 협조도에 달려 있지만 조사에 임하는 자신의 센스있는 기법과 진실일관된 성실성의 자세로 신뢰감을 주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국에서의 현지확인 점검시나 질문자가 바뀔때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반복적인 실사에 소홀히 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마음가짐과 정신자세로, 아울러 부담없는 실사기법을 창조해 나갈려는 우리의 노력 및 대상처의 통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사문화되다시피한 통계법을 실용화하여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통계국에서의 홍보활동과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책망과 벌칙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뒷받침 되어질때 완전한 실사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100%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성실과 인내로 더욱 더 힘차게 분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통 계 아 가 씨

경북사무소 조 미 옥

저는 오늘 저의 직장생활 5년 8개월동안 통계업무에 몸담아 오면서 느꼈던 점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앞에 섰습니다.

1986년 6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9급으로 통계가족과 인연을 맺은 이래 처음 시작한 직장생활과 대학생살을 병행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며 가계부집계, 조사표 정리등으로 한동안 바쁘고 경황없이 지내왔습니다. 어언 세월이 흐르고 보니 대학졸업이라는 뿌듯한 보람을 안게 되었고, 맡은 업무에 대하여도 새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이란 경제정책의 종합운영, 기획 및 재원 조달, 예산편성 등을 관장하는 부서며, 많은 인재들을 확보한 정부 제일의 부서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런 섭섭한 생각의 모든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과연 제가 조사 업무에 충실했느냐에 대한 자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음을 알고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때껏 일선에서 체험하며 느껴온 나름대로의 소견을 여러분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제 36년, 6, 25사변등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불신만 남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의 결과가 과세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나 응답을 회피하는 사람들, “정부가 국민을 도와 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래? 도와주려면 양식이나 주지” 하면서 고탈을 지르시는 분, 여러분들도 한번 쯤 당해 보셨겠지만 간첩으로 오인받는 등, 격동기를 살아

은 분들의 불신이 깊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과 안정된 복지사회가 구현된다면 이러한 불신풍조는 옛 시대의 유물로 사라질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에 찬 기대를 해 봅니다.

둘째, 한국인의 숫자나 계량에 대한 개념이 회박하다는 사실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몇시 쯤 되었습니까?”란 물음에 “지금 서너시 쯤 되었을걸”이라고 대답하고 “저 사과가 몇개 정도 되겠습니까?”하면 “약 칠팔십개 정도 되겠는걸”이라고 대답합니다. 묻는사람도, 대답하는사람도 ~쯤 ~정도 ~경이란 애매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옛날 우리네 선조님들은 숫자에 밝으면 상놈이라고 물건거래에서나 집안살림에서나 직접 셈하지 않고 집사나 노비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대부들의 영향으로 정확한 숫자개념이 확립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한국인들에게 몇 %성장이니 전년도 대비 몇%라는 말이 실감있게 받아들여지기엔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들어올때보다는 많이 정확 해졌으며 사회적인 관심도가 달라졌습니다.

세째, 저와 여러분이 경제, 사회적인면등 다방면에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경제활동조사구에 조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들이 이 지역이 표본조사구역으로 선정되어서 경제활동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하니 “난 잘몰라요 우리 아저씨가 까다로워서 물어보고 나서는 몰라도 지금은 아무말도 해줄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이 지역은 경제활동지역으로 아주머니택이 우리나라 547가구를 대표하는 가구로 선정된거예요” “아휴! 난 잘모르겠다니까”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께 저녁에 말씀드려봐 주세요. 제가 내일 들리겠습니다.”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집을 방문하니 한결 같았습니

다. “아주머니 아저씨께 여쭙어 보셨어요” “물어 보니까 그런 쓸대없는 것 이야기 해주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아주머니 제가 아저씨 뵙고 말씀 드리면 되겠네요” “맘대로 해요” “아저씨 저녁 몇시쯤 들어 오시죠” “저녁 7시나 8시쯤 오면 만날수 있을거예요” “그럼 제가 8시경 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집을 나오면서 꼭 설득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전 경제활동 및 인구동태지침서를 숙지하여 저녁에 그집을 방문 했습니다.

“계십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경제기획원이 포항에도 있나요?”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다시 마음을 스스로 다잡하면서 “저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포항에 업무가 많아서 상주하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 그리고 도시가계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 고용구조 및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노동력의 수급 및 실업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인구 자연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후생, 교육등 광범위한 국가 정책기초자료에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증을 보였더니 아저씨께서 “올라와서 차한잔 하시죠” 하더군요. 저는 찬스다 싶어서 재빨리 방안으로 들어 갔더니 아저씨께서 “저 표본조사란것이 신빙성이 있나요?” “아저씨 표본조사의 필요성과 장점에 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예로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콩 백가마니를 놔두고서 이것이 몇알인지를 만나질 동안에 계산하면 상금을 주고 못하면 곤장을 친다는 방을 붙였는데 사람들은 구름때 같이 모여 들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요. 그러나 한 총각이 나서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1가마니를 풀더니 말로 헤아리고 1말을 되로세고 1되를 홑으로 세더니 1홑의 갯수를 헤아려서 X홑의수X되

의수×말의수×가마니수를 해서 몇개라하니 그 부잣집서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했답니다. 이와같이 적은 경비와 짧은시간으로 비록 오차는 있겠지만 근사치를 추정해 낼수가 있고 정책에 빨리 반영할수있다는 의미에서 표본조사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음 그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구료. 그러면 아가씬 우리나라 5차5개년 성취도와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저는 아득해 졌습니다. 전혀 예상못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집을 나오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경제기획원에 근무한다면 “5차5개년 계획의 기초쫘은 알아두었어야 할것을”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방면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우린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있나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네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없이는 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통계의 중요성을 누가 먼저 알아야 할까요. 저는 지방에 복무위탁하면서 느낀건데 통계담당자라면 모름지기 애착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통계에 관심이 부족하다면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법인데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것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총사업체조사가 매스컴, 특히 T.V를 통한 홍보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지역통계가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로 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 포항 지역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원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역통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의 지원과 홍보가 있다해도 이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노력치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발령받을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이 태만해지고 안일해진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계기로 정책의 기반은 다지는 선봉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새로운 각오로 뛰어 볼것입니다. 노력을 하다보면, 최선을 다해 뛰다 보면 그 만큼의 보람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밝은 햇살을 등에 지고 조사구 골목을 들어서면 “통계아가씨! 오늘은 무얼 물으러 또 와요?” 투정어린 반감을 들으며 낯익은 아주머니와 대화를 통해 조사도 하고,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통계아가씨”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조그만 힘이 통계발전과 나라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점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